



| 국어 2-1 |

# 정답과 해설

## 공통 개념 기본서

빠른 정답 한눈에 보기	002
<b>1</b> 문학	008
<b>2</b> 읽기	020
<b>3</b> 문법	023
<b>4</b> 듣기·말하기	028
<b>5</b> 쓰기	031

# 1 | 문학

## 01 시

핵심 체크 | p.8~10

1 윤율 2 반복 3 내재율 4 후각적 5 반어 6 웃음 7 ○  
8 X 9 X

### 개념 확인 문제 p.11

1 ㉠, ㉡, ㉢ 2 (1) ㉢, (2) ㉡ 3 역설 4 ㉢ 5 ①-㉡, ②-㉢, ③-㉠,  
④-㉡, ⑤-㉢ 6 안, 동일하지 않다 7 ①, ③, ④, ⑤

### (1) 엄마 걱정

#### 지문 내용 확인 p.12

1 ○ 2 촉각적 3 엄마

#### 작품 한눈에 보기 p.12

반복 성인 촉각적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3

01 ④ 02 ② 03 ② 04 ② 05 ④  
06 ③ 07 ④ 08 해는 시든 지 오래

### (2) 먼 후일

#### 지문 내용 확인 p.14

1 X 2 X 3 가정적

#### 작품 한눈에 보기 p.14

임 3 반어법 그리움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5

01 ④ 02 ④ 03 ⑤ 04 ③ 05 ①  
06 ⑤ 07 반어법을 사용하여 그 속뜻을 강조하고 있다

### (3) 진달래꽃

#### 지문 내용 확인 p.16

1 이별 2 X 3 음보

#### 작품 한눈에 보기 p.16

사랑 역설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7

01 ③ 02 ⑤ 03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04 ②  
05 ⑤ 06 1연, 4연 07 반어적 표현을 통해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  
려는 의지와 임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 (4) 넌 바보다

#### 지문 내용 확인 p.18

1 ○ 2 긍정적 3 반복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9

01 ③ 02 ④ 03 ④ 04 ㉠는 '너'를 놀리는 말이고,  
㉡는 '너'를 칭찬하는 말이다. 05 ② 06 ②  
07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 (5) 까마귀 싸우는 골에 / 까마귀 검다 하고

#### 지문 내용 확인 p.20

1 대조 2 X 3 ○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21

01 ① 02 ③ 03 ⑤ 04 ② 05 ② 06 ④ 07 청강에,  
결 하고 08 공통점: 까마귀와 백로가 색채 대비를 통해 서로 대조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 / 차이점: (가)에서는 까마귀가 부정적 대상, 백로가 긍정적 대상인  
반면, (나)에서는 까마귀가 긍정적 대상, 백로는 부정적 대상으로 표현되어 있다.

### (6) 성탄제

#### 지문 내용 확인 p.22

1 ○ 2 후반부 3 어린 짐승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23

01 ⑤ 02 눈 03 ④ 04 ⑤ 05 ④  
06 ⑤ 07 아버지의 사랑

### (7) 봄길

#### 지문 내용 확인 p.24

1 구체적 2 X 3 있다

#### 작품 한눈에 보기 p.24

절망적 부정 긍정 희망 미래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25

01 ⑤ 02 ① 03 ④ 04 봄길 05 ⑤ 06 ③ 07 끝까지  
희망을 지키는 삶 /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되는 삶

### (8) 귀뚜라미

#### 지문 내용 확인 p.26

1 귀뚜라미 2 ○ 3 노래

#### 작품 한눈에 보기 p.26

소외 대조

차곡차곡 실력 체크

p.27

- 01 ⑤ 02 ⑤ 03 ③ 04 ④ 05 ③  
06 알콩두부 07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에서 알 수 있듯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한다.

02 소설

핵심 체크 | p.28~30

- 1 허구적 2 주제 3 X 4 갈등 5 X 6 X 7 묘사  
8 직접적 9 간접적

개념 확인 문제

p.31

- 1 ①-㉔, ②-㉑, ③-㉒ 2 ㉑ 발단, ㉒ 전개, ㉓ 위기, ㉔ 절정, ㉕ 결말  
3 ①-㉑, ②-㉒, ③-㉓, ④-㉔ 4 간접적 제시 방법(보여 주기)

(1) 동백꽃

잠깐! 소설 미리보기

p.32

닭싸움 감자 고추장 수탉 동백꽃

차근차근 내용 체크

p.33~36

- 1 ③ 2 ④ 3 ② 4 ① 5 ③ 6 ③ 7 마름 8 ① 9 ①  
10 ③ 11 누 집 닭인데? 12 ④ 13 ① 14 동백꽃 15 ① 16 ③

핵심 포인트

p.34~36

핵심 포인트

- 01 적극적, 갈등 02 두려움, 화해 03 사랑

소주제

전개 감자 절정 수탉 결말 동백꽃

작품 한눈에 보기

p.37

과거 웃음 순박함 감자

차곡차곡 실력 체크

p.38~39

- 01 ① 02 ② 03 ② 04 ③ 05 ⑤ 06 ⑤ 07 ⑤

(2) 사랑손님과 어머니

잠깐! 소설 미리보기

p.40

옥희 달걀 꽃, 풍금 편지 기차

차근차근 내용 체크

p.41~45

- 1 ④ 2 ④ 3 달걀 4 ① 5 꽃 6 ⑤ 7 ③ 8 ⑤ 9 ③  
10 ③ 11 ② 12 풍금 13 ④ 14 ④ 15 ⑤ 16 슬픔

핵심 포인트

p.41~45

핵심 포인트

- 01 1 02 보수 03 내적 04 부정적 05 꽃송이, 달걀

소주제

발단 소개 전개 내외 위기 꽃 절정 거절 결말 정리

작품 한눈에 보기

p.45

관찰자 웃음 달걀 이별

차곡차곡 실력 체크

p.38~39

- 01 ④ 02 ① 03 ① 04 ⑤ 05 ①  
06 ⑤ 07 ⑤ 08 아저씨의 사랑에 대한 어머니의 거절 / 아저씨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

(3) 양반전

잠깐! 소설 미리보기

p.48

무능 비난 방해 돈, 신분 가난 신분, 의무 양반

차근차근 내용 체크

p.49~52

- 1 ④ 2 ⑤ 3 ①, ④ 4 ① 5 병거지, 잠방이, 소인 6 ③ 7 내용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8 ② 9 ② 10 ① 11 ④ 12 도둑놈

핵심 포인트

p.49~52

핵심 포인트

- 01 환국, 무력 02 양반, 신분 03 비도덕적 04 양반

소주제

처음 환자 중간 1 양반 끝 양반

작품 한눈에 보기

p.53

신분 풍자 실학 환국 신분 부패 곡식

차곡차곡 실력 체크

p.54~55

- 01 ③ 02 ⑤ 03 ③ 04 ⑤ 05 ② 06 ③ 07 ③  
08 군수는 부자의 마음을 변화시켜 부자의 욕망을 좌절시켜 둘의 신분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려고 매매 증서를 작성한 것이다.

(4) 운수 좋은 날

잠깐! 소설 미리보기

p.56

인력거꾼 불안 아내 설렁탕 운수

차근차근 내용 체크

p.57~60

- 1 ⑤ 2 ② 3 ② 4 ⑤ 5 ⑤ 6 ③ 7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8 ③ 9 ① 10 ② 11 ⑤ 12 ⑤ 13 ③ 14 ③

핵심 포인트

p.58~60

핵심 포인트

- 01 조밥, 속절 02 아내 03 무덤, 불안감 04 사랑, 돈

소주제

발단 아내 전개 행운 절정 죽음 결말 죽음

작품 한눈에 보기

p.61

비속어 설렁탕 비극성

차곡차곡 실력 체크

p.62~63

- 01 ④    02 ③    03 ①    04 ①    05 설렁탕  
06 ④    07 ②    08 아내가 죽음.

(5) 일가

잠깐! 소설 미리보기

p.64

일가 편지 압수 죄인 눈물

차근차근 내용 체크

p.65~69

- 1 ②    2 ⑤    3 ④    4 ②    5 일가    6 ⑤    7 ③    8 ⑤    9 ②  
10 갈취    11 ⑤    12 ③    13 ①    14 ⑤

핵심 포인트

p.65~69

핵심 포인트

01 1인칭 주인공    02 수심    03 갈취    04 죄책감    05 죄책감, 성장

소주제

발단 일가    전개 불편    위기 편지    절정 미안    결말 눈물

작품 한눈에 보기

p.69

성장    비판    공감    갈취    이기주의

차곡차곡 실력 체크

p.70~71

- 01 ①    02 ④    03 ⑤    04 일가친척의 의미(일가의 의미)  
05 ③    06 ②    07 ⑤

03 희곡

핵심 체크 | p.72~73

- 1 연극    2 X    3 X    4 시나리오    5 X    6 ○    7 음악적

개념 확인 문제

p.73

- 1 ㉠-무대 지시문, ㉡-대사, ㉢-동작 지시문    2 희곡-㉠, ㉡, ㉢ / 시나리오-㉣, ㉤    3 (1) F.I. (2) S# (3) C.U. (4) O.L. (5) Ins. (6) 몽타주  
4 X, X, ○, ○, ○

(1) 완득이

차근차근 내용 체크

p.76~80

- 1 ④    2 ③    3 말줄임표를 사용하였다.    4 ①    5 '우리'는 아버지, 완득이, 민구 삼촌으로, 어머니는 완득이네 가족이 아니라는 인식이 드러난다.  
6 ③    7 ②    8 ①    9 ③    10 ②    11 ②    12 ⑤    13 ④    14 ①  
15 ③    16 자유롭게    17 ⑤

핵심 포인트

p.77~80

01 거리감    02 다문화    03 도전, 의지

차곡차곡 실력 체크

p.82~83

- 01 ②    02 ④    03 ㉠ 운동화 ㉡ 분홍색 구두    04 ③    05 어머니가 어린 완득이를 두고 집을 나갔기 때문이다.    06 ③    07 ③    08 ④  
09 '그런데 한번 꼭 듣고 싶어요. / 목소리 한번 꼭 듣고 싶어요.'를 추가하여 어머니의 완득이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강조하고자 했다.

(2) 들판에서

잠깐! 희곡 미리보기

p.84

권위적    독립    교활    들판, 밧줄    벽    측량기사    민들레꽃    벽

차근차근 내용 체크

p.85~93

- 1 ④    2 ②    3 민들레꽃    4 말뚝, 밧줄    5 ④    6 ⑤    7 ⑤    8 ④  
9 ②    10 내 집    11 ⑤    12 ④    13 측량 기사    14 ③    15 ④  
16 ①    17 ④    18 ㉠ 체면, ㉡ 독립    19 ①    20 ⑤    21 훌륭한 관  
광 명소    22 ③    23 ④    24 ㉡, ㉢    25 ①    26 ①    27 ⑤    28 ⑤  
29 비    30 ③    31 민들레꽃    32 우리, 벽을 허물기로 하자    33 ④  
34 ⑤

핵심 포인트

p.85~93

핵심 포인트

01 맑음, 들판, 우애, 외세    02 바람, 밧줄, 휴전선    03 번개, 천둥, 총  
04 비, 민들레꽃    05 햇빛, 민들레꽃

소주제

발단 측량 기사    전개 땅    절정 총

작품 한눈에 보기

p.94

들판    밧줄    총    화해    우애

차곡차곡 실력 체크

p.95

- 01 ④    02 ③    03 ④    04 ④    05 우리나라의 분단 현실을 극복하자.

04 수필

핵심 체크 | p.96~97

- 1 형식    2 X    3 ○    4 개성적    5 ○    6 X

개념 확인 문제

p.98

- 1 (1) 형식 (2) 체험 (3) 개성    2 소설-①, ②, ⑤ / 수필-③, ④, ⑤    3 봄  
4 ㉠-㉣-㉡-㉢

(1) 나의 모국어는 침묵

차근차근 내용 체크

p.99~100

- 1 ④    2 ②    3 ②    4 ①    5 ①    6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이다.    7 ④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02~103

- 01 ④    02 ③    03 ④    04 기대감-당황스러움-실망감-깨달음    05 상대방의 존재를 더 잘 느낄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06 ④    07 ⑤    08 ⑤    09 ㉠ 사람의 존재를 가장 잘 느끼는 방법은 말이 아닌 침묵임. ㉡ 인디언 흉내를 내며 말을 하지 않다가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음. ㉢ 그동안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면서 살았음.

(2)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04~106

- 1 ②    2 ⑤    3 ④    4 ②    5 ⑤    6 ⑤    7 ④    8 ④

## 핵심 포인트

p.104~106

### 핵심 포인트

- 01** 도서관, 마음 **02** 무협지, 문장, 뿌듯함  
**03** 정신문화, 가치, 통로, 길

### 소주제

처음 도서관      중간 일생      끝 책

## 작품 한눈에 보기

p.107

독서    고전    도서관    고전    일생    정신    보약  
다리    ①-㉠, ②-㉡, ③-㉢, ④-㉣, ⑤-㉤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08~109

- 01** 책    **02** ②    **03** ①    **04** ②    **05** ⑤  
**06** ③    **07** 도서관, 허생전, 정신세계, 조상, 일생, 통로  
**08** 그 책을 읽은 경험이 인생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 책을 읽은 경험 때문에 소설가가 되었기 때문이다.)

# 2 | 읽기

## 01 설명 방법 파악하며 읽기

핵심 체크 | p.112

- 1** 효과적, 이해    **2** 정의    **3** 비교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12

- 1** ⑤    **2** ③

우리는 왜 간지럼을 느낄까

##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13~115

- 1** ④    **2** 간지럼을 타는 이유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3** ③  
**4** ④    **5** ④    **6** 대조, 인과, 예시    **7** ②, ④    **8** ②, ⑤    **9** ①    **10** ③, ⑤

## 내용 한눈에 보기

p.116

- ①-㉠, ②-㉡, ③-㉢, ④-㉣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17~118

- 01** ③    **02** ③    **03** ④    **04** ②, ④    **05** ㉠: 간지럼은 통각과 관련이 있다. ㉡: 간지럼의 원인은 통각만이 아니다.    **06** ④    **07** ⑤  
**08** ②    **09** ㉢, ㉣    **10** 가까운 사이에 간지럼을 통해 유대감을 증진하고, 신체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한 방어 능력을 학습하기 위해서이다.

정전기가 겨울로 간 까닭은?

##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19~121

- 1** ②, ③    **2** ④    **3** ③    **4** ③, ⑤    **5** ①    **6** ②    **7** ③, ④    **8** ④  
**9** 예시    **10** ⑤

## 내용 한눈에 보기

p.122

- ①-㉠, ②-㉡, ③-㉢, ④-㉣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23~124

- 01** ④    **02** ②    **03** ②    **04** ②    **05** 높은 곳에  
고여 있는 물, 흐르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전기이기 때문이다.  
**06** ④    **07** ③    **08** ④    **09** ②    **10** 예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독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02 매체에 나타난 표현 방법과 의도

핵심 체크 | p.125

- 1** 매체    **2** 〇    **3** 비판적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25

- 1** ②    **2** 의문형 문장을 통해 독자의 관심과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착한 소비, 내 지갑 속의 투표용지

##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26~128

- 1** ②    **2** ③, ⑤    **3** ⑤    **4** 의미 있는 소비를 하려는 사람들의 열망    **5** ⑤  
**6** ①    **7** ②, ④    **8** ㉠ 비유적 표현 ㉡ 점층적 표현

## 내용 한눈에 보기

p.129

- ①-㉠, ②-㉡, ③-㉢, ④-㉣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30~131

- 01** ③    **02** ④    **03** 익명의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04** 자료 1: 독자의 시선을 끌고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 글의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자료 2: 달콤 참고가 확산되는 모습을  
한눈에 파악하게 할 수 있다. / 달콤 참고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음을  
보여 줄 수 있다.    **05** ②    **06** ④    **07** 호모 에코노미쿠스  
**08** ③    **09** 착한 소비는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행동이다.

# 3 | 문법

## 01 정확한 발음과 표기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34~137

- 1** 〇    **2** 전통성    **3** ⑤    **4** (1) 허망 (2) 의미 (3) 사랑의 미로/사랑에 미로  
**5** ㄱ, ㄴ, ㄷ, ㄹ, ㅁ, ㅂ, ㅅ    **6** ㅈ, ㅊ, ㅋ, ㆁ / ㅅ, ㅆ, ㅈ, ㅊ, ㅌ, ㅍ - ㄷ / ㅈ - ㅈ / ㅈ - ㅈ / ㅈ - ㅈ / ㅈ - ㅈ    **7** 〇    **8** ㄷ    **9** ②  
**10** X    **11** X    **12** (1) 꺾 (2) 뺐다    **13** ②

## 잠깐! 교과서 학습활동 미리보기

p.138~139

- 1** 표준 발음법과 한글 맞춤법의 개념: 규범, 표준어, 실제 발음, 소리, 어법  
**2** 표준 발음법: 웃웃웃[우소울] → [우도슬], 밝대[발따] → [박따]  
값을[가블] → [갑슬], 꽃의[꼬세] → [꼬체 / 꼬치]  
**3** 한글 맞춤법 표기 원칙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는 것 - 창문[창문], 칠판[칠판], 가위[가위]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것 - 연필깎이[연필까끼], 책꽂이[책꼬지]  
**4** 틀리기 쉬운 한글 맞춤법  
(1) 없음, 읊 / (3) 만듦 → 만듦, 시퍼요 → 싫어요

학습활동 응용 문제

p.138~139

1 ② 2 ③ 3 ② 4 ④

차근차근 개념 체크

p.140

- 01 발음, 규범, 의사소통, 한글 맞춤법 02 (1) X, (2) ○, (3) X, (4) ○, (5) ○, (6) ○, (7) X 03 (1) 우도술 (2) 박따 (3) 갑술 (4) 익찌 (5) 부여간 (6) 디그술 04 (1) 무니 (2) 힌 (3) 의자 (4) 거의, 거이 (5) 허비, 허비 (6) 꼬치, 꼬체 05 (1) ○, (2) ○, (3) X, (4) ○ 06 (1) 담가, (2) 달아두이, (3) 나으세요, (4) 쓰러질 07 (1) 들어나요 → 드러나요, (2) 문안하게 → 무난하게 08 준수, 준수, 다쳤어요, 단혔어요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41~143

- 01 ④ 02 ⑤ 03 ⑤ 04 ④ 05 ① 06 ② 07 ① 08 ⑤ 09 '맛있어'는 [마디씨]와 [마시씨] 두 가지로 발음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마디씨]로 발음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시씨]라고 발음하는 현실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10 ⑤ 11 ④ 12 ⑤ 13 ② 14 ③ 15 시퍼요 → 씩어요, '시퍼요'는 소리 나는 대로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어법에 맞게 적어야 한다. 16 ④ 17 ④ 18 ⑤ 19 ③ 20 ④ 21 ① 22 ⑤

## 02 담화의 개념과 특성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44~146

- 1 X 2 맥락 3 도서관이 마음에 드니? / 도서관에 대한 너의 생각은 언제 4 의도 5 ○ 6 (1) 세대(나이) (2) 지역 (3) 문화 7 X 8 지시 9 그래서, 그것, 하지만(그러나)



교과서 학습활동 미리보기

p.147~148

### 1 담화의 개념과 구성 요소

- (1) • 담화의 참여자: 의미와 성현이  
• 담화가 이루어진 시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 방과 후  
• 담화가 이루어진 장소: 교실  
(2) 같이 시험공부를 할 장소로 도서관이 어떤지 제안하는 의미이다.  
(3) 담화는 생각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문장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언어 단위이다.

### 2 담화의 맥락

말하는 이와 듣는 이를 중심으로 담화를 살펴보자.

- (1) (가) “어떠세요?”의 의미 -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드세요?  
청자의 대답 -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머리 모양이에요.  
(나) “어떠세요?”의 의미 - 치료 부위가 아프세요?  
청자의 대답 -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2) 화자의 발화 의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3)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나 장소를 고려해야 한다.

사회·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담화를 살펴보자.

- (1) • 잘못 이해한 말: 싸게  
• 잘못 이해한 이유: 고모가 사는 지역과 주연이가 사는 지역에서 ‘싸게’라는 말을 다른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 고모는 ‘싸게’라는 말을 ‘빨리, 서둘러서’라는 의미로 사용했지만, 주연이는 ‘값이 저렴하게’라는 의미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2) 역사적·사회적 상황, 공동체의 가치, 세대, 문화 등

### 3 담화의 구성 요건

- (1) 유나의 말이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신비의 말은 발화마다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그것들이 하나의 주제로 모이지 않아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알기 어렵다. 이에 비해 유나의 말은 “충분한 수면이 건강에 도움을 준다.”라는 하나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다.  
(2) (나)가 (가)보다 문장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나)는 ‘이것’, ‘이’와 같은 지시 표현과 ‘하지만’, ‘또한’과 같은 접속 표현을 사용하여 문장과 문장을 (가)보다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습활동 응용 문제

p.147~148

1 ⑤ 2 ⑤ 3 ③ 4 하지만(그러나)

차근차근 개념 체크

p.149

- 01 (1) 담화 (2) 화자 (3) 청자 (4) 발화 (5) 맥락 02 화자의 청자: 누나, 동생 / 맥락: 놀이공원에서 누나와 동생이 놀이 기구를 타려고 함. / 발화: • 동생: 놀이 기구 타기를 무서워함. • 누나: 동생을 안심시키고 있음. 03 목적, 상황 04 세대, 사회 05 (1)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드세요?, (2) 치료 부위가 아프세요? 06 세대(나이) 07 통일성, 접속 08 (1) 이것, 이 (2) 하지만, 또한 09 하지만(그러나)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50~151

- 01 ④ 02 ③ 03 ③ 04 ③ 05 ㉠ 글의 주제와 거리가 멀어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해야 한다. ㉡ 접속 표현 ‘그러나’를 넣으면 글의 응집성을 높일 수 있다. 06 ① 07 ④ 08 ② 09 ③ 10 ③

## 03 한글의 창제 원리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52~154

- 1 X 2 자주 3 28 4 ○ 5 ④ 6 X 7 X 8 가획 9 X 10 ④ 11 ○ 12 ㄱ, ㄴ, ㄷ 13 ㄱ, ㄴ, ㄷ, ㄹ 14 음절 15 ㄱ, ㄷ



교과서 학습활동 미리보기

p.155~156

### 1 한글의 창제 배경과 창제 원리 이해하기

- (1) - (b), (2) - (C), (3) - (a), 달라, 백성, 뜻, 편리하게

### 2 자음의 제자 원리 탐구하기

- ① 입, 이, 목구멍 / ㄱ, ㄴ, ㄷ, ㄹ ② 더해서 / (1) ㄷ (2) ㅌ (3) ㅊ (4) ㅍ  
③ 같은 글자 또는 서로 다른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붙여 썼다.

### 3 모음의 제자 원리 탐구하기

- ① 하늘, 땅, 사람 / ㅡ, ㅣ ② ㅏ, ㅑ / ㅗ, ㅛ / ㅜ, ㅠ / ㅡ, ㅣ, ㅜ, ㅠ

### 4 한글의 우수성 탐구하기

- ① 적은 수의 글자로 수많은 단어를 표현할 수 있다.  
② 한글은 소리가 비슷한 글자들끼리 모양이 비슷해서 글자의 모양을 보고 글자들의 관계나 소리의 특징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영어 알파벳은 소리가 비슷한 글자라도 모양이 전혀 달라서 글자의 모양을 보고 글자들의 관계나 소리의 특징을 짐작하기 어렵다.  
③ • 한글의 체계적인 창제 원리를 적용하여 컴퓨터나 휴대 전화 자판을 이용할 때 정보를 효율적으로 입력할 수 있다.  
•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을 합쳐서 모아쓰기 때문에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정보를 전달하는 데 실용적이다.

학습활동 응용 문제

p.155~156

1 ⑤ 2 ⑤ 3 ④ 4 ④

## 차근차근 개념 체크

p.157

- 01 (1) 자주 정신, (2) 애민 정신, (3) 실용 정신 02 (1) ㄱ (2) ㄴ, ㄷ (3) ㄹ (4) ㅈ  
(5) ㅇ, ㅎ 03 (1) · (2) — (3) | 04 ㅏ, ㅑ, ㅓ, ㅕ  
05 (1) ○ (2) X (3) X (4) ○ 06 ㉠, ㉡ 07 (1) 합성 (2) 가획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58~159

- 01 ③ 02 ⑤ 03 ② 04 ③ 05 ⑤ 06 ① 07 ④  
08 ‘·’는 하늘의 둥근 모양을, ‘—’는 땅의 평평한 모양을, ‘|’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09 ② 10 ② 11 ④ 12 ⑤  
13 ⑤ 14 한글은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 때문에 영어 알파벳에 비해 좁은 공간에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 4 | 듣기·말하기

## 01 공감하며 대화하기

핵심 체크 | p.162

- 1 의미 2 공감 3 소극적 들어 주기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62

- 1 ③ 2 ④

##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63~165

- 1 ⑤ 2 ③ 3 대화의 필요성과 중요성 4 ③ 5 ③ 6 상대가 계속 말할 수 있도록 돕는다. 7 ④ 8 ③ 9 상대방이 한 말을 요약하기

## 내용 한눈에 보기

p.166

의미	의미	생각	중요성	친밀한	공유	목적
청자	집중	반응	공감	소극적	집중	적극적
요약	재구성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67~168

- 01 ④ 02 의미 공유 03 ② 04 ① 05 청자의 지식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06 ① 07 ③ 08 ⑤  
09 (가)의 광수와 (나)의 찬우 모두 공감하며 듣기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광수는 소극적 들어 주기, 찬우는 적극적 들어 주기를 하고 있다.

## 02 발표하기

핵심 체크 | p.169

- 1 ○ 2 핵심 정보 3 청중, 이해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69

- 1 ② 2 ⑤

##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70~173

- 1 ⑤ 2 ② 3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듣는 이의 흥미를 끌 수 있다. 4 ④ 5 ① 6 문제 상황-해결 방안-실천 방안의 순서로 내용이 제시되도록 '3 → 1 → 2'의 순서로 재배열 한다. 7 ④ 8 ③ 9 ① 10 ② 11 ② 12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 / 우리 학교의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에 동참하자.

## 내용 한눈에 보기

p.174

자료	구성	주제	매체 자료	정리	주제
방법	꽃밭	설문	동영상	실태	
핵심 정보	실천	핵심 정보	매체 자료	흥미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75~176

- 01 ⑤ 02 ⑤ 03 ④ 04 학교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한다.  
05 ⑤ 06 ⑤ 07 ③ 08 학교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실천한 활동으로 학교 꽃밭 만들기를 제시한다.

# 5 | 쓰기

## 01 설명하는 글 쓰기

핵심 체크 | p.180

- 1 X 2 분류 3 X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80

- 1 ④ 2 ②

##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81~184

- 1 ⑤ 2 머리카락이나 머릿결에 관련된 정보를 설명하기 위해서 3 ②  
4 ① 5 ② 6 ① 7 ⑤ 8 ③ 비교 ⑥ 분류 ⑦ 인과 9 ④ 10 ③  
11 ② 12 ⑤ 13 ④ 14 재구성

## 내용 한눈에 보기

p.185

목적	개요	방법	정의	인과	추가	재구성
유지해	그래서	문맥	이해	중심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86

- 01 ③ 02 ⑤ 03 ⑤ 04 ① 05 (마)의 '머리카락은 추위나 더위, 물리적 충격 등과 같은 다양한 외부 자극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해 준다.'는 문단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 02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글 쓰기

핵심 체크 | p.187

- 1 속담 2 X 3 X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87

- 1 ③ 2 ②

##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88~190

- 1 ② 2 ④ 3 김빠진 탄산음료 4 ③ 5 ④ 6 ① 7 ② 8 ③  
9 등잔 밑이 어둡다

## 내용 한눈에 보기

p.191

관용구	고마움	안부	관용구	흥 부자	외롭다	발 벗고
-----	-----	----	-----	------	-----	------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92

- 01 ① 02 ③ 03 (가) 외로움 (나), (다) 그리움 (라) 고마움  
04 ② 05 '비행기 태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여 자신이 한 말이 헛된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친구를 칭찬하는 말임을 강조하고 있다.



# 1 | 문학

## 01 시

핵심 체크 | p.8~10

1 운율 2 반복 3 내재율 4 후각적 5 반어 6 웃음 7 ○  
8 X 9 X

### 개념 확인 문제

p.11

1 ㉠, ㉡, ㉢ 2 ① ㉢, ② ㉢ 3 역설 4 ㉢ 5 ①-㉢, ②-㉢, ③-㉠,  
④-㉢, ⑤-㉢ 6 안, 동일하지 않다 7 ①, ③, ④, ⑤

- 1 ㉠ 3행에서 울림소리인 ‘ㄴ, ㄹ, ㅁ’을 반복하고 있음. ㉡ 각 행이 대체로 3음보를 반복하고 있음. ㉢ 1행과 2행에 ‘~에 ~는 ~같이’의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음.
- 4 제시된 시의 화자는 ‘나’로 아홉 명의 자식이 있는 아버지이며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지녔다.
- 7 시조는 보통 4음보로 끊어 읽는다.

### (1) 엄마 걱정

#### 지문 내용 확인

p.12

1 ○ 2 촉각적 3 엄마

#### 작품 한눈에 보기

p.12

반복 성인 촉각적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3

01 ④ 02 ② 03 ② 04 ② 05 ④  
06 ③ 07 ④ 08 해는 시든 지 오래

- 01 1연에서 배춧잎 같은 발소리는 엄마의 발소리이므로, 화자가 집 앞을 걷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2 ‘외로움’이나 ‘두려움’같은 화자의 정서가 나타나고 있는 있지만, 반어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 03 이 시는 혼자 엄마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쓸쓸함, 외로움, 서글픔 등이 느껴진다.
- 04 ‘빈방에 혼자 엎드려’라는 구절로 보아, 화자는 어린 시절 혼자서 엄마를 기다렸음을 알 수 있다.
- 05 ‘빗소리’는 화자의 훌쩍거리는 울음소리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이미지로, 화자의 외로움을 고조시킨다.
- 06 ‘찬밥’은 춥고 외로운 느낌, 아무도 돌보지 않고 버려진 듯한 느낌이 드는 시어이다.

07 <보기>에서 시어의 반복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는 서둘러 열무를 팔아서 아들에게 밥을 해 주려는 엄마의 사랑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08 ‘해는 시든 지 오래’는 엄마가 이고 간 열무가 시들 정도로 시간이 흘러 해가 져 있음을 의미하고,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 (2) 먼 후일

#### 지문 내용 확인

p.14

1 X 2 X 3 가정적

#### 작품 한눈에 보기

p.14

임 3 반어법 그리움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5

01 ④ 02 ④ 03 ⑤ 04 ③ 05 ①  
06 ⑤ 07 반어법을 사용하여 그 속 뜻을 강조하고 있다

- 01 이 시의 화자는 떠난 임을 무척 그리워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만나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하지는 않았다.
- 02 이 시는 3·3·4조의 3음보 음수율을 갖고 있다.
- 03 ㉠은 반어법이다. ①은 역설법, ②는 의인법, ③은 반복법과 영탄법, ④는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 04 이 시의 화자는 떠난 임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다.
- 05 이 시의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다. ②에는 안타까움, ③에는 외로움, ④에는 임을 향한 사랑, ⑤에는 자식들을 향한 사랑이 드러나 있다.
- 06 <보기>는 반어법을 사용하지 않고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직설적으로 표현했지만, ㉠은 반어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감정을 더욱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 07 반어법은 자신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상황으로 표현하여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 (3) 진달래꽃

#### 지문 내용 확인

p.16

1 이별 2 X 3 3음보

#### 작품 한눈에 보기

p.16

사랑 역설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7

- 01 ③      02 ⑤      03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04 ②  
05 ⑤      06 1연, 4연      07 반어적 표현을 통해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  
려는 의지와 임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 01 이 시는 화자의 감정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02 '진달래꽃'은 이별의 한을 드러내는 소재로, 이 시에서는 화자의 분신이자 사랑, 임을 향한 순종과 정성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는 개인적 아픔일 뿐 민족적으로 보편화하기는 힘들다.  
03 3연의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 이별의 정한을 승고한 사랑으로 승화하고 있다.  
04 이 시와 <보기> 모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상황에서 느끼는 슬픔과 한의 정서가 잘 드러나 있다. ① 화자의 자기희생적인 의지는 이 시에만 나타나 있다. ③ 원망의 정서는 <보기>에만 드러나 있다. ④ <보기> 뿐만 아니라 이 시에서도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이 드러난다. ⑤ 이 시의 화자는 이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고 있다.  
05 ㉠에는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⑤에는 반어법이 사용되었다.  
06 1연과 4연의 2:3행은 '만약 ~ 한다면, ~ 하겠다'는 미래 시제의 표현이다. 즉,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07 겉으로 드러난 의미와 속에 감춰진 의미가 서로 반대인 반어법을 사용하여 이별의 정한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4) 년 바보다

지문 내용 확인

p.18

- 1 ○      2 긍정적      3 반복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9

- 01 ③      02 ④      03 ④      04 ㉠은 '너'를 놀리는 말이고, ㉡는 '너'를 칭찬하는 말이다.      05 ②      06 ②  
07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 01 이 시는 화자의 독백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나'와 '너' 사이의 대화가 직접 인용되고 있지는 않다.  
02 이 시는 '너'의 긍정적인 면을 나열하고 있다. 하지만 일을 빨리 정확하게 처리한다는 내용은 없다. ① 7~9행, ② 10~15행, ③ 1~6행, ⑤ 10~12행, 16~18행  
03 이 시의 화자는 '너'에 대해 '너는 참 바보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는 그런 '너'를 따라다니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바보 같은 '너'의 성격을 배우고 싶다는 의미이다.

- 04 ㉠은 고지식한 '너'를 놀리기 위해 다른 친구들이 하는 말이고, ㉡는 '너'의 긍정적인 면을 드러내기 위해 '나'가 반어적으로 하는 말이다.

- 05 이 시의 2연에는 '그림자처럼'이라는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⑥의 '찬밥처럼'에도 직유법이 나타나 있다.

- 06 ㉠ 다른 사람들과 달리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너'의 태도를 보여 준다. ㉡ '너'와 달리 다른 친구들은 인사하지 않으므로 친근하고 존경받는 어른이라고 볼 수 없다. ㉢ 흔히 볼 수 있지만 외면받는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물건을 의미한다. ㉣ 친구의 허풍을 잘 들어주는 '너'의 인물됨을 드러낸다.

- 07 이 시에서는 '나'가 본받고 싶어하는 '너'를 '바보'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보기>에서는 '당신'을 잊지 못하는 마음을 '잊었노라'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5) 까마귀 싸우는 골에 / 까마귀 검다 하고

지문 내용 확인

p.20

- 1 대조      2 X      3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21

- 01 ①      02 ③      03 ⑤      04 ②      05 ②  
06 ④      07 청강에, 걸 희고      08 공통점: 까마귀와 백로가 색채 대비를 통해 서로 대조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 / 차이점: (가)에서는 까마귀가 부정적 대상, 백로가 긍정적 대상인 반면, (나)에서는 까마귀가 긍정적 대상, 백로는 부정적 대상으로 표현되어 있다.

- 01 시조는 조선 전기에는 양반과 사대부가 주로 썼으며, 후기에는 평민 계층까지 적극 참여하였다.

- 02 (가)는 사람도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주변을 경계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③은 먹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쉬움을 의미한다.

- ① 침소봉대(針小棒大): 작은 것을 크게 부풀려서 말함. ② 백년하청(百年河淸): 어떤 일이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이루어지기 어려움. ③ 근묵자흑(近墨者黑): 먹을 가까이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검어짐. ④ 하석상대(下石上臺): 임시변통으로 이리저리 둘러맞춤. ⑤ 조삼모사(朝三暮四):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교활한 꾀를 써서 남을 속이고 놀림.

- 03 (가)와 (나)에 나타나는 주된 심상은 시각적 심상이다. ①에는 공감각적 심상, ②에는 촉각적 심상, ③과 ④에는 청각적 심상이 드러난다.

- ① 김광균, '외인촌', ② 신경림, '가난한 사랑 노래', ③ 김상옥, '다보탑', ④ 신석정,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⑤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 04 (가)에서 비판의 대상은 싸우기 좋아하는 간신 무리인 ‘까마귀’이고, (나)에서 비판의 대상은 고려에 대한 절의를 지켰다고 자처하는 신하들로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의미하는 ‘백로’이다. (나)에서 백로는 ‘겉 희고 속 검은 것’, ‘너’로 표현되었다.
- 05 (나)의 화자는 고려의 신하였지만 새 왕조에 가담하여 높은 벼슬까지 지냈는데, 이를 두고 고려의 충신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를 변절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나)는 이런 비난에 대한 답변으로 새 왕조 건국에 참여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 06 ㉠과 ㉡은 서로 대조적인 관계이다. ㉣에서 ‘달’은 아무 구속 없이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나’는 인간의 운명적 한계를 지닌 존재이다. ㉠ 유치환, ‘바위’, ㉡ 한하운, ‘파랑새’, ㉢ 김동명, ‘내 마음은’, ㉣ 서정주, ‘추천사’, ㉤ 윤동주, ‘햇비’
- 07 시조 종장의 첫 음보는 반드시 3글자여야 한다.
- 08 (가)와 (나) 모두 까마귀와 백로의 색인 흑과 백을 대비하여 나타내고 있다. (가)에서는 청강에 깨끗이 씻은 백로의 몸이 까마귀에 의해 더럽혀질까 봐 염려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까마귀를 부정적, 백로를 긍정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백로를 겉과 속이 다른 부정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 (6) 성탄제

### 지문 내용 확인

p.22

- 1 ○ 2 후반부 3 어린 짐승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23

- 01 ㉠ 02 눈 03 ㉣ 04 ㉤ 05 ㉣  
06 ㉤ 07 아버지의 사랑

- 01 이 시는 과거와 현재, 시골과 도시라는 시간과 공간의 대칭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02 이 시는 6연의 ‘눈’을 매개체로 하여 1연~6연 1행은 과거 시골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6연 2행~10연은 현재의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 03 ‘늙으신 할머니’와 ‘어린 목숨’은 의미상으로는 대비되지만 심상의 대비는 아니다. ㉠, ㉡, ㉢은 시각적 심상의 대비, ㉤는 촉각적 심상의 대비를 나타낸다.
- 04 이 시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나타난다. ㉤ 역시 눈내리는 밤에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며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 ㉠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 ㉡ 동네 사람 사이의 정겨움, ㉢ 이기적인 자

신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 ㉣ 햇빛에 대한 반가움과 고마움  
㉠ 김소월, ‘엄마야 누나야’, ㉡ 권태웅, ‘한 동네 사람’, ㉢ 안도현, ‘연탄 한 장’, ㉣ 권태웅, ‘햇빛이 말을 걸다’, ㉤ 김용호, ‘눈 오는 밤에’

- 05 3연을 보면 아버지는 눈 속을 약으로 쓸 산수유 열매를 가지고 돌아왔음을 알 수 있다.
- 06 ‘서느런 옷자락’은 자식을 위해 산수유 열매를 구해 온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한다.
- 07 추운 겨울날 아버지가 눈 속을 헤치고 따 온 산수유 열매는 자식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한다.

## (7) 봄길

### 지문 내용 확인

p.24

- 1 구체적 2 X 3 있다

### 작품 한눈에 보기

p.24

절망적 부정 긍정 희망 미래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25

- 01 ㉠ 02 ㉠ 03 ㉣ 04 봄길 05 ㉤  
06 ㉢ 07 끝까지 희망을 지키는 삶 /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되는 삶

- 01 ㉠은 논설문, ㉡는 설명문, ㉢은 소설, ㉣는 수필을 감상하는 방법이다. ㉤ 시에서는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바탕으로 전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해야 한다.
- 02 말하는 이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
- 03 ㉠은 반복, ㉡는 반어, ㉢은 도치, ㉣는 역설, ㉤는 비유에 대한 설명이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라는 표현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04 이 시의 소재이자 제목인 ‘봄길’은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면서 따뜻한 희망을 상징한다.
- 05 ‘뜨거운 사람’은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다. 사랑이 끝났음에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 06 ㉢의 화자도 이 시의 화자와 같이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상황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07 이 시에서 ‘봄길’은 ‘앞날, 미래, 희망’을 상징하고 있다. 말하는 이는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음을 말하면서 희망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 (8) 귀뚜라미

### 지문 내용 확인

p.26

1 귀뚜라미 2 ○ 3 노래

### 작품 한눈에 보기

p.26

소외 대조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27

- 01 ⑤ 02 ⑤ 03 ③ 04 ④ 05 ③  
 06 알콩두부 07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에서 알 수 있듯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한다.
- 01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아직 때가 오지 않아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귀뚜라미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다.
- 02 ⑤는 시적 화자가 기다리는 시절로, 귀뚜라미의 노래가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가 되는 날을 의미한다.
- 03 이 시의 귀뚜라미가 사람처럼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의인법이 쓰였다. ①은 은유법, ②와 ⑤는 직유법, ④는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 04 이 시에서의 '매미'와 '귀뚜라미'가 처한 환경과 생태는 대조적으로 드러난다.
- 05 이 시의 시인은 시인 자신처럼 주목받지 못하는 귀뚜라미를 통해 시인의 처지를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시적 화자를 귀뚜라미로 설정하였다.
- 06 '매미'는 전성기를 맞이하여 이미 그 울음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존재이다. '귀뚜라미'는 현재는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고 있다.
- 07 3연의 마지막 행에서는 '노래'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에는 자신의 울음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가 되기를 바라는 '나'의 소망이 드러난다.

## 02 소설

핵심 체크 | p.28~30

- 1 허구적 2 주제 3 X 4 갈등 5 X 6 X 7 묘사  
 8 직접적 9 간접적

### 개념 확인 문제

p.31

- 1 ①-㉔, ②-㉑, ③-㉒ 2 ㉑ 발단, ㉒ 전개, ㉓ 위기, ㉔ 절정, ㉕ 결말  
 3 ①-㉑, ②-㉒, ③-㉓, ④-㉔ 4 간접적 제시 방법(보여 주기)

## (1) 동백꽃

### 잠깐! 소설 미리보기

p.32

닭싸움 감자 고추장 수탉 동백꽃

### 차근차근 내용 체크

p.33~36

- 1 ③ 2 ④ 3 ② 4 ① 5 ③ 6 ③ 7 마름 8 ① 9 ①  
 10 ③ 11 누 집 닭인데? 12 ④ 13 ① 14 동백꽃 15 ① 16 ③

- 1 발단 부분은 현재의 이야기이고, 전개 부분은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이다.
- 2 서술자인 '나'는 작품 속의 등장인물이므로 점순이의 속마음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괴롭히는 점순이의 말과 행동만을 서술하고 있다.
- 3 점순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점순이가 준 감자를 딱 잘라 거절하는 것으로 보아 '나'는 무뎌지고 고지식하며 순박하고 어수룩함을 알 수 있다.
- 4 점순이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감자 사건 이후인 것으로 보아, ㉔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시집갈 때가 되었다는 어른들의 농담을 점순이는 천연덕스럽게 받고 있다.
- 6 '나'는 "누 집엔 이거 없지?"라는 점순이의 말에 자존심이 상하여 감자를 거절하였다.
- 7 (라)에서 점순이네는 마름이고 '나'의 집은 점순이네에 신세를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름'은 일제 강점기까지 있었던 신분으로, 지주를 대리하여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 8 '나'의 성격이 우직해서이기도 하지만, 점순이는 마름의 딸이고, '나'는 소작인의 아들이라 함부로 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 9 절정 부분에서도 '나'는 점순이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 10 '나'는 점순이가 자신의 복장을 떼밀어 넘어지면서 분하기도 하고 무안하기도 했다.
- 11 해설 | '나'는 분노 때문에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다가 "누 집 닭인데?"라는 점순이의 말을 듣고 점순이네와 자신의 집의 관계를 깨닫게 되었다.
- 12 (사)에서 '나'는 점순이네 수탉을 때려죽여 점순이와 갈등을 겪고 있다.
- 13 '나'는 "이담부터 안 그럴 테냐?"라고 묻는 점순이의 말에 담긴 속마음을 파악하지 못한 채, 다급한 마음에 "그래!"라고 대답하고 있다.
- 14 '동백꽃'은 글의 서정성을 높이고 청춘 남녀의 순수하고 풋풋



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부각하는 역할을 하는 소재이다.

- 15** 이 글은 농촌을 배경으로 하여 순박한 소년과 소녀의 사랑을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다.
- 16** 점순이가 ‘나’를 괴롭히는 것은 자신의 호의(감자)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핵심 포인트**

p.34~36

**핵심 포인트**

- |                   |                   |
|-------------------|-------------------|
| <b>01</b> 적극적, 갈등 | <b>02</b> 두려움, 화해 |
| <b>03</b> 사랑      |                   |
| 소주제               |                   |
| 전개 감자             | 절정 수탉             |
| 결말 동백꽃            |                   |

**작품 한눈에 보기**

p.37

과거                  웃음                  순박함                  감자

**차곡차곡 실력 체크**

p.38~39

- |             |             |             |             |             |
|-------------|-------------|-------------|-------------|-------------|
| <b>01</b> ① | <b>02</b> ② | <b>03</b> ② | <b>04</b> ③ | <b>05</b> ⑤ |
| <b>06</b> ⑤ | <b>07</b> ⑤ |             |             |             |

- 01** 이 글은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02**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로, 주인공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전달하고 있다.
- 03** ‘나’를 좋아하는 점순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감자를 거절하는 것으로 보아, ‘나’는 눈치가 없으며 무뚝뚝함을 알 수 있다.
- 04** ㉔은 점순이가 ‘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감자를 주면서 한 말이다.
- 05** ‘나’는 독자들도 다 알고 있는 점순이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어수룩하다. 이는 상황을 재미있게 하고, 독자의 웃음을 자아낸다.
- 06** <보기>의 서술자는 등장인물인 ‘나’에서 이야기 밖의 누군가로 바뀌었다. 이 글에서는 점순이의 말과 행동만 서술할 뿐 속마음은 직접 제시하지 않았으나, <보기>에서는 점순이의 속마음까지 설명하고 있다.
- 07** ‘동백꽃’은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와 점순이 사이에 생겨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한다.

**(2) 사랑손님과 어머니**

**잠깐! 소설 미리보기**

p.40

옥희   달걀   꽃, 풍금   편지   기차

**차근차근 내용 체크**

p.41~45

- |             |             |              |             |             |             |              |            |            |
|-------------|-------------|--------------|-------------|-------------|-------------|--------------|------------|------------|
| <b>1</b> ④  | <b>2</b> ④  | <b>3</b> 달걀  | <b>4</b> ①  | <b>5</b> 꽃  | <b>6</b> ⑤  | <b>7</b> ③   | <b>8</b> ⑤ | <b>9</b> ③ |
| <b>10</b> ③ | <b>11</b> ② | <b>12</b> 풍금 | <b>13</b> ④ | <b>14</b> ④ | <b>15</b> ⑤ | <b>16</b> 슬픔 |            |            |

- 1**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는 등장인물들의 심리에 대한 직접적 제시보다는 행동과 대사 등을 통한 간접적 제시가 주로 나타난다.
- 2** 옥희는 작품 속에서 주인공인 어머니와 아저씨의 이야기를 관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 3** ‘나’는 아저씨가 자신처럼 좋아하는 음식이 삶은 달걀이라는 것을 알고 기뻐한다. 어머니는 아저씨가 달걀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달걀을 많이 삼으로써 아저씨에 대한 관심과 정성을 나타내고 있다.
- 4** 외삼촌의 말로 보아 당시는 서구의 개방적 가치관이 조금씩 확산되는 시기였으나, 어머니는 보수적이고 봉건적인 가치관을 지녔기 때문에 외간 남자와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을 꺼렸다.
- 5** 어머니는 아저씨가 꽃을 보냈다는 옥희의 말을 듣고 아저씨에 대한 연모의 감정으로 몹시 당황했다.
- 6** 어머니는 아저씨의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기 위해서 꽃을 버리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 7** 어머니는 아저씨가 꽃을 주라고 했다는 옥희의 말에 당황한 것인데, ‘나’는 그러한 심리를 눈치채지 못하고 어머니가 화가 났다고 생각하여 독자의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 8** 어머니는 여성의 재혼에 대해 개방적이지 않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재혼을 했을 때 옥희가 받을 상처를 걱정하여 재혼을 포기하기로 결심하였다.
- 9** ‘하얀 손수건’은 아저씨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어머니의 마음을 나타내며 이별을 상징한다.
- 10** (바)에서 어머니는 옥희를 위해 자신의 사랑을 단념할 것을 결심했으므로 ③이 가장 적절하다.
- 11** 아저씨는 하얀 손수건이 자신의 편지에 대한 답장임을 알고 긴장하고 있다.
- 12** 어머니는 사랑손님과 사랑의 포기를 하고 난 후의 슬픔을 풍금을 치며 달래고 있다.
- 13** 어머니는 아저씨가 탄 기차를 멀리서나마 배웅하고 싶어서 옥희를 데리고 뒷동산에 갔다.



- 14 어머니는 아저씨를 떠나보내며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끼고 있다.
- 15 어머니는 풍금 뚜껑을 닫고, 꽃송이를 버리며, 달걀을 사지 않음으로써 아저씨에 대한 연모의 마음을 정리하려 하고 있다.
- 16 ‘나’는 달걀이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인 줄 알면서도 사지 않으려는 어머니의 속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어머니는 아저씨를 떠나보내게 되어 슬퍼하고 있다.

#### 핵심 포인트

p.41~45

#### 핵심 포인트

01 1	02 보수
03 내적	04 부정적
05 꽃송이, 달걀	
소주제	
발단 소개	전개 내외
위기 꽃	절정 거절
결말 정리	

#### 작품 한눈에 보기

p.45

관찰자 웃음 달걀 이별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38~39

- 01 ④ 02 ① 03 ① 04 ⑤ 05 ①  
06 ⑤ 07 ⑤ 08 아저씨의 사랑에 대한 어머니의 거절 / 아저씨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

- 01 이 글은 1930년대 어느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로, 특정한 지역의 사투리가 나타나지 않는다.
- 02 이 글은 1인칭 관찰자 시점, <보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 ‘나’는 작품 속의 등장인물이다.
- 03 어머니는 ‘남녀유별(男女有別)’이라는 봉건적, 전통적 윤리 의식을 지녔으며, 외삼촌은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사고방식을 지녔다.
- 04 아저씨가 삶은 달걀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달걀을 많이 사는 것으로 보아, 어머니가 아저씨에게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05 이 글의 작가는 순진한 여섯 살 여자아이를 서술자로 내세움으로써 자칫 상투적으로 그려질 수 있는 어머니와 아저씨의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 글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주인공의 심리를 관찰자의 입장에서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06 어머니는 아저씨가 자신에게 꽃을 주며 마음을 고백한 것이라 생각하고 당황하였다.

- 07 (나)에서 어머니가 재혼을 할 경우 듣게 될 말들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당시는 과부의 재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 08 어머니가 풍금으로 구슬프고 고즈넉한 곡조를 연주하는 것으로 보아, 손수건 속에 넣은 어머니의 편지는 아저씨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3) 양반전

#### 잠깐! 소설 미리보기

p.48

무능 비난 방해 돈, 신분 가난 신분, 의무 양반

#### 차근차근 내용 체크

p.49~52

- 1 ④ 2 ⑤ 3 ①, ④ 4 ① 5 병거지, 잠방이, 소인 6 ③ 7 내용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8 ② 9 ② 10 ① 11 ④ 12 도둑놈

- 1 이 글의 정선군에 사는 양반은 성격이 어질고 글 읽기를 좋아하지만, 자신이 빌려 먹은 환자를 갚지 못할 만큼 가난하다.
- 2 양반의 생활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가장으로서 빚을 해결할 능력조차 없음을 비꼬는 말이다.
- 3 ‘부자’는 경제력으로 신분 상승을 꾀하는 인물로 조선 후기에 등장한 신흥 계층을 대표한다.
- 4 ‘부자’는 조선 후기에 등장한 평민 부자의 전형적인 인물이다. 돈은 많지만 신분이 낮아 양반에게 수모를 당하고, 이로 인해 양반이 되고자 하는 신분 상승 욕구가 있다.
- 5 양반이 아니라 평민임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는다. 병거지와 잠방이는 평민의 차림이고, ‘소인’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을 상대할 때 자신을 낮춰 부르던 말이다.
- 6 이 글의 ‘양반’은 어려운 형편 때문에 양반 신분을 판 것이지, 신분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판 것이 아니다.
- 7 소설이지만 내용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연도를 제시한 것이다.
- 8 양반은 느릿느릿 걸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 9 (마)에 나타난 양반은 어떤 생산적인 일도 하지 않으면서 겉치레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반들의 허례허식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 10 ①~⑥는 모두 양반 계층을 의미한다. 하지만 ④는 양반을 포함한 모든 신분 계층을 가리킨다.
- 11 ‘부자’는 평민에게 횡포를 부리는 부도덕한 양반의 행태가 담긴 증서 내용을 듣고, 이를 도둑놈의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12 (바)를 통해 글쓴이는 양반들의 횡포를 설명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사)에서 ‘도둑놈’으로 표현하고 있다.

핵심 포인트

p.49~52

핵심 포인트

- 01 환곡, 무력                      02 양반, 신분  
03 비도덕적                      04 양반

소주제

- 처음 환자                      중간 1 양반  
끝 양반

작품 한눈에 보기

p.53

신분	풍자	실학	환곡	신분
부패	곡식			

차곡차곡 실력 체크

p.54~55

- 01 ③      02 ⑤      03 ③      04 ⑤      05 ②  
06 ③      07 ③      08 군수는 부자의 마음을 변화시켜 부자의 욕망을 좌절시켜 둘의 신분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려고 매매 증서를 작성한 것이다.

- 01 군수가 자신이 문서를 작성하여 증인을 서 준다고 하는 것으로 볼 때 관청에서도 이런 신분 동요를 법적으로 막을 수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02 군수는 겉으로 보기에 양반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매 증서를 작성하면서 양반을 관 양반도 비판하고, 양반 신분을 산 부자도 함께 비판하고 있다.
- 03 현실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한 양반의 무능함을 풍자를 통해 비판하고 있다.
- 04 양반의 복장은 평민의 복장이고, 군수에게 자신을 ‘소인’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 양반이 자신의 신분을 팔았음을 알 수 있다.
- 05 (가), (나)에 나타난 양반의 모습은 체면과 격식 때문에 수많은 의무에 얽매어 사는 모습이다.
- 06 밑줄 친 부분은 관직에 나간 선비는 권력을 이용해 권세와 이익을 얻지 말라는 내용이다. (다)는 ‘홍패가 돈 자루나 다름 없다’며, 권세를 이용해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07 (라)는 백성들의 노동력을 갈취하고 백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양반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생원’은 취발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08 군수는 신분을 사고파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군수는 매매 증서 작성을 통해 둘의 신분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려 한 것이다.

(4) 운수 좋은 날



소설 미리보기

p.56

인력거꾼   불안   아내   설렁탕   운수

차근차근 내용 체크

p.57~60

- 1 ⑤   2 ②   3 ②   4 ⑤   5 ⑤   6 ③   7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8 ③   9 ①   10 ②   11 ⑤   12 ⑤   13 ③   14 ③

- 1 이 글은 1920년대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다. 설렁탕은 특정 시대에만 존재하던 것이 아니므로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는 말로 볼 수 없다.
- 2 가난한 생활 형편으로 인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약도 제대로 쓰지 못했기 때문이다.
- 3 ‘비’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과 연결되어 비극적 상황을 암시하고 주인공이 처한 환경 등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 4 ‘그년’, ‘지랄병’ 같은 비속어를 통해 하층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5 겉으로는 아내에게 냉정하게 대하지만 아픈 아내에게 설렁탕을 사 주려고 하는 것을 보면 속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6 (다)에는 병든 아내를 두고 온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 불안해하는 김 철지의 심리가 드러난다.
- 7 김 철지가 집을 나서기 전, 오늘은 나가지 말아 달라던 병든 아내의 애원은 그녀의 죽음을 암시하는 복선이다.
- 8 김 철지는 집이 가까워지자 아내에 대한 걱정 때문에 불안해졌다가, 멀어지자 불안감을 내려 놓고 있다.
- 9 아내가 죽었음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현실로 다가올까 봐 불안해서 걸음이 느려진 것이다.
- 10 물을 길어 대며 찬 값에 세들어 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난하고 열악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1 ‘꿀떡꿀떡하고 젖 넘어가는 소리’는 아내가 살아 있어야 들을 수 있는 소리이다.
- 12 김 철지는 아내가 죽었음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쳐 버리기 위해서 고함을 치고 있다.
- 13 김 철지가 겉으로는 아내에게 욕을 하고 구박을 하지만, 속으로는 아내를 아끼고 사랑한다. ‘설렁탕’은 이런 마음을 담고 있는 소재이다.
- 14 오랜만에 찾아온 행운과 아내의 죽음이라는 불행을 대조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하층민의 비참한 삶을 비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핵심 포인트

p.58 ~60

핵심 포인트

01 조밥, 숙정	02 아내
03 무덤, 불안감	04 사랑, 돈
소주제	
발단 아내	전개 행운
절정 죽음	결말 죽음

작품 한눈에 보기

p.61

비속어 설령탕 비극성

차곡차곡 실력 체크

p.62~63

01 ④	02 ③	03 ①	04 ①	05 설령탕
06 ④	07 ②	08 아내가 죽음.		

- 이 글은 비속어와 사투리를 사용하여 인물을 실감 나게 그리고, 하층민의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김 침지는 말이나 행동이 거칠지만 속으로는 아내를 깊이 사랑하는 선량하고 인정 넘치는 마음을 지녔다.
- 김 침지는 거의 열흘 동안 돈을 벌지 못했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팔십 전을 벌었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 김 침지는 거칠고 몰인정한 태도를 보이지만, '김 침지의 눈시울은 뜨끈뜨끈한 듯하였다.'를 통해 실제 속마음은 아내를 사랑하고 애처롭게 여기고 있어 안타까워함을 알 수 있다.
- 김 침지는 아내를 위해 설령탕을 사 가지고 집에 돌아오지만, 병든 아내는 이미 죽어 설령탕을 먹을 수가 없게 되어 비극적인 운명을 강조한다.
-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는 작품 밖에서 인물의 생각이나 심리를 모두 명확하게 알고 있는 입장에서 작품 속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② 1인칭 주인공 시점, ③ 작가 관찰자 시점, ⑤ 1인칭 관찰자 시점
- <보기>는 작품의 감상 방법 중에서 사회·문화적 배경에 중점을 두어 감상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②는 이 글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있다.
- 김 침지에게 오늘은 모처럼 돈을 많이 벌어 운수가 좋은 날이지만, 실상은 병든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운수가 나쁜 날이다.

(5) 일가

잠깐! 소설 미리보기

p.64

일가 편지 압수 죄인 눈물

차근차근 내용 체크

p.65~69

1 ②	2 ⑤	3 ④	4 ②	5 일가	6 ⑤	7 ③	8 ⑤	9 ②
10 갈취	11 ⑤	12 ③	13 ①	14 ⑤				

- 이 글은 농촌 지역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 '나'는 아버지의 충고를 받아들여 미옥이에게 편지를 썼고 봄방학 날 답장을 받았지만 아직 그 내용은 모른다.
- 아저씨는 녀석 좋게 '나'에게 눈을 찡긍거리기도 하고, 처음 본 어머니에게도 하고 싶은 말을 다하는 솔직하고 거리낌 없는 성격의 인물이다.
- 아저씨는 '나'의 가족이 일가친척이라 생각하여 편하게 대하고 있다.
- 일가는 아저씨가 가족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아저씨는 술을 마시면서 점점 더 열을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만 '나'의 가족들은 이야기를 듣지 않고 딴 생각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인다.
- 엄마는 아저씨가 자신의 집에 계속 지낼 것 같아서 걱정하고 있다.
- 엄마는 손님으로 왔으면서 날마다 술을 달라고 빨래를 해 달라는 아저씨의 행동을 몰상식하다고 여기고 있다.
- 엄마는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어린 나이에 연애를 한다고 생각해서 압수했다고 하였다.
- 아버지는 '나'의 편지를 압수한 엄마의 행동을 '갈취'라고 표현하였고, 엄마가 이에 화를 내면서 부부 싸움을 하게 된다.
- (차)에서 '나'는 사실 엄마와 아버지가 대립할 수밖에 없는 밑바닥 감정에는 분명 아저씨의 존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였다.
- 아저씨는 '나'의 엄마가 집을 나간 것이 자신 때문이라 생각하면서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 작가는 청소년인 '나'의 성장을 통해 일가의 의미가 사라져가고 있는 현대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 작년의 '나'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미옥이 때문에 울 뿐, 아저씨에 대해서는 불편해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은 아저씨가 느꼈을 외로움에 공감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핵심 포인트

p.65 ~69

핵심 포인트

- |            |        |
|------------|--------|
| 01 1인칭 주인공 | 02 수심  |
| 03 갈취      | 04 죄책감 |
| 05 죄책감, 성장 |        |

소주제

- |       |       |
|-------|-------|
| 발단 일가 | 전개 불편 |
| 위기 편지 | 절정 미안 |
| 결말 눈물 |       |

작품 한눈에 보기

p.69

- |    |    |    |    |      |
|----|----|----|----|------|
| 성장 | 비판 | 공감 | 갈취 | 이기주의 |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70~71

- |      |      |      |                     |
|------|------|------|---------------------|
| 01 ① | 02 ④ | 03 ⑤ | 04 일가친척의 의미(일가의 의미) |
|      | 05 ③ | 06 ② | 07 ⑤                |

- 이 글의 서술자는 청소년인 '나'로 작품에 등장하여 자신을 둘러싼 이야기를 하는 주인공이다.
- 아버지가 아저씨에게 우사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아저씨가 자발적으로 우사 일을 하며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엄마가 이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
- 서술자가 엄마로 바뀌면 '나' 혼자 겪은 일은 알 수 없게 되므로, 미옥이의 편지가 학교 책상 서랍 안에 있었던 일은 전달할 수 없다.
- '나'와 엄마가 일가친척인 아저씨를 불편해하며 떠나기를 바라는 모습을 통해 가족 이기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 엄마가 '나'의 편지를 압수한 것에 대해 아버지가 '갈취'라는 표현을 쓴 것이 부부 싸움의 직접적 원인이고, 그 이면에는 아저씨를 둘러싼 상대의 태도에 대한 불만이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저씨가 '나'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 이 글에서는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청소년인 '나'를 서술자로 설정하여 아저씨에 대한 생각이 성숙해지는 변화를 보여 줌으로써 일가의 의미가 사라져 가는 사회의 대한 비판이라는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작년에 '나'는 미옥이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은 것이 원통해서 울었지만, 지금의 '나'는 아저씨의 외로움에 공감하면서 미안함을 느끼며 울고 있다.

03 회곡

핵심 체크 | p.72~73

- 1 연극 2 X 3 X 4 시나리오 5 X 6 ○ 7 음악적

개념 확인 문제

p.73

- 1 ㉠ - 무대 지시문, ㉡ - 대사, ㉢ - 동작 지시문 2 회곡 - ㉠, ㉡, ㉢ / 시나리오 - ㉣, ㉤ 3 (1) F.I, (2) S# (3) C.U, (4) O.L, (5) Ins, (6) 몽타주 4 X, X, ○, ○, ○

(1) 완득이

차근차근 내용 체크

p.76~80

- 1 ④ 2 ③ 3 말줄임표를 사용하였다. 4 ① 5 '우리'는 아버지, 완득이, 민구 삼촌으로, 어머니는 완득이네 가족이 아니라는 인식이 드러난다. 6 ③ 7 ② 8 ① 9 ③ 10 ② 11 ② 12 ⑤ 13 ④ 14 ① 15 ③ 16 자유롭게 17 ⑤

- '옥탑방', '낡은 문', '달동네'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동네를 배경으로 함을 알 수 있다.
- ㉠은 어머니의 심리를 독백 형식의 노래로 표현하고 있다.
- 말을 쉽게 시작하지 못하거나 말과 말을 잘 잊지 못하는 모습을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 바로 앞의 말을 통해 어머니가 어린 완득이를 버리고 집을 나갔음을 알 수 있다.
-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라는 말에는 그 집이 어머니의 집이 아니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 ㉡의 편지에는 완득이가 많이 보고 싶었다는 내용과 그동안 함께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완득이는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엄마의 편지를 읽으며, 어릴 때 자신을 버린 엄마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내고 있다.
- 완득이가 운동화를 신으며 신기해하는 것은 어머니에게서 받은 첫 선물이기 때문이다. 새 운동화를 처음 신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 거스름돈을 달라는 어머니의 말에 대한 반응으로 보아 양심적으로 장사를 한다고 보기 힘들다. 또한 손님인 완득이와 어머니에게 반말하는 것으로 보아 예의가 바르다고 볼 수도 없다.
- 완득이는 어머니와 자신이 무슨 사이인지 집요하게 묻는 가게 주인에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 완득이는 도내 챔피언에게 승부가 어떻게 되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버티겠다고 말하고 있다.
- '소중한 존재들 / 날 일으켜 줘'에서 이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부하고 고집을 피우던 완득이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일으켜 달라고 말하고 있다.
- 소설에서는 서술자인 '나'를 통해 내용을 전달했으나, 뮤지컬 대본에서는 내용을 전달하는 서술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 14 완득이는 노래에서 '내게는 원망만 가득했어'라고 고백하고 있다.
- 15 (아)는 이 뮤지컬의 대단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갈등이 해결되며 극이 마무리되고 있다.
- 16 '자유롭게 / 별처럼 하늘을 날아올라'라는 구절로 보아 ㉠은 '자유롭게'를 비유함을 알 수 있다.
- 17 '암전'은 무대의 조명이 꺼지는 것을 의미하며, 장면이 바뀌거나 극의 종료를 알려 준다. 이 부분은 극의 마지막 부분이다.

#### 핵심 포인트

p.77 ~80

- 01 거리감                      02 다문화  
03 도전, 의지

#### 작품 한눈에 보기

p.81

킥복싱    대사    노래    미안함    응원    소중함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82~83

- 01 ②      02 ④      03 ㉠ 운동화 ㉡ 분홍색 구두      04 ③  
05 어머니가 어린 완득이를 두고 집을 나갔기 때문이다.      06 ③  
07 ③      08 ④      09 '그런데 한번 꼭 듣고 싶어요. / 목소리 한번 꼭 듣고 싶어요.'를 추가하여 어머니의 완득이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강조하고자 했다.
- 01 이 글의 공간적 배경은 '옥탑방'이다. 이는 향토적인 느낌보다는 서민들의 고단한 삶이 느껴지는 배경으로 볼 수 있다.
- 02 (라)의 완득이의 말로 보아 완득이는 이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최선을 다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03 (가)에서 어머니가 사 온 '운동화'나 (다)에서 완득이가 사 주려는 '분홍색 구두'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 04 ㉠ 속 편지에는 완득이를 버리고 떠났던 것에 대한 어머니의 미안한 마음이 담겨 있을 것이다.
- 05 ㉡의 구체적인 이유는 (나)의 아버지의 말에서 찾을 수 있다. 아버지는 자식을 버리고 호강하겠다고 도망을 쳤다며 어머니를 책망하고 있다.
- 06 서술자가 내용을 전달하는 소설과 달리 뮤지컬 대본은 서술자 없이 극중 인물이 직접 내용을 전달한다.
- 07 (다)에서는 '보고 싶었던 적 없다'는 완득이의 심리와 '잊었던 적 없다'는 엄마의 심리가 대조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08 (라)에서는 완득이와 다른 인물들이 번갈아가며 노래를 한다. 완득이가 과거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의지를 노래하는 중간중간에 다른 인물들이 '괜찮아'라는 노래를 후렴구처럼 넣어주고 있다.
- 09 (나)에서는 원작 소설의 편지 내용에 없는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추가하면서 그리운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 (2) 들판에서

### 잠깐! 희곡 미리보기

p.84

권위적    독립    교활    들판, 밧줄    벽    측량기사    민들레꽃    벽

### 차근차근 내용 체크

p.85~93

- 1 ④    2 ②    3 민들레꽃    4 말뚝, 밧줄    5 ④    6 ⑤    7 ⑤    8 ④  
9 ②    10 내 집    11 ⑤    12 ④    13 측량 기사    14 ③    15 ④  
16 ①    17 ④    18 ㉠ 체면, ㉡ 독립    19 ①    20 ⑤    21 훌륭한 관  
광 명소    22 ③    23 ④    24 ②, ⑤    25 ①    26 ①    27 ⑤    28 ⑤  
29 비    30 ③    31 민들레꽃    32 우리, 벽을 허물기로 하자    33 ④  
34 ⑤

- 1 (가)는 희곡의 구성 요소 중 '해설'에 해당한다. 해설은 희곡의 첫머리에서 등장인물과 배경, 무대 장치 등을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 2 (나)에는 들판에서 형제가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이 드러난다.
- 3 형제는 민들레꽃을 꺾어 서로에게 내밀며 우애를 다짐하고 있다.
- 4 측량 기사가 형제 사이에 말뚝과 밧줄을 치면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 5 소설이나 희곡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 대개 새로운 사건이 발생한다.
- 6 '적반하장(賊反荷杖)'은 '자신들이 잘못했음에도 오히려 큰 소리를 낸다.'는 말로, 측량 기사의 태도와 어울린다.  
① 작은 일을 크게 불리어 떠벌림. ② 어물어물 망설이기만 하고 결단성이 없음. ③ 남의 세력을 빌려 위세를 부림. ④ 겉으로는 부드럽고 순해 보이나 속은 곧고 굳셈.
- 7 ⑤는 지시문에 대한 설명이다.
- 8 밧줄을 치우는 문제에 대한 대화에서 밧줄을 남이 치워 주길 바라는 형은 소극적인 성격임을, 우리가 치우면 된다고 하는 아우는 적극적인 성격임을 알 수 있다.
- 9 ㉠은 형제간의 갈등 원인이 형제 자신들의 마음속에도 있음을 보여 준다.



- 10 '우리 집'은 공동 소유이지만, '내 집'은 한 사람의 단독 소유이다. 형은 '우리 집'에서 '내 집'으로 말을 바꾸어 표현하고 있다.
- 11 아우는 형에 대한 경쟁 의식과 독립 의지 때문에 동등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형은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렇지만 아우가 형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고 말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12 ④는 (아)에 나오는 '조립식 벽'을 통해 알 수 있다.
- 13 '측량 기사'는 형과 아우를 이간질하여 땅을 뺏으려 하는 인물로, 외세를 상징한다.
- 14 '벽'은 형제간의 단절과 대립, 갈등을 유발하는 소재로, 서로를 더욱 불신하게 만든다.
- 15 (자)에는 형과 아우가 각각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 16 형제는 자신들의 행동과 말을 후회하지만 각각 체면과 독립 의지 때문에 사과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다.
- 17 맑았던 날씨가 흐려지고 바람이 부는 것은 형제간의 갈등 심화를 암시하고 위태로운 분위기를 형성한다.
- 18 형과 아우는 화해하려고 하지만, 형은 체면 때문에, 아우는 독립 의지 때문에 사과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
- 19 측량 기사는 형이 동생을 의심하도록 부추겨 땅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
- 20 희곡에서 등장인물의 성격은 대사와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된다.
- 21 형제의 싸움은 우리의 분단 현실을 상징하며, 이에 대한 작가의 태도는 비판적, 풍자적이다.
- 22 (타)는 형제가 서로를 향해 총을 쏘며 대치하여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절정 단계이다.  
① 발단 ② 하강 ③ 절정 ④ 전개 ⑤ 대단원
- 23 아우는 측량 기사의 흥계를 모르고 있다.
- 24 ㉠에는 비웃음과 만족감의 의미가 담겨 있다.
- 25 (타)~(파)에서는 상대를 죽일 수 있는 무기인 '총'이 등장함으로써 위기감이 극대화된다.
- 26 ㉠은 총소리가 나야 하는 부분으로, 실제 공연 시 효과음으로 처리한다.
- 27 ㉠의 날씨 변화는 형제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나타낸다.
- 28 형제는 잘못을 뉘우치며 화해하고 싶어 한다.
- 29 형제는 비를 맞으며 벽을 지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

고 있고, 그동안 서로에게 했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 30 (하)에서 형제는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
- 31 절정 부분에서 '민들레꽃'은 화해와 동질성의 회복을 의미한다.
- 32 '벽을 허물기로 하자!'는 갈등 극복과 화해의 실천 의지를 담은 표현이다.
- 33 ㉠의 '한 줄기 햇빛'을 통해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형제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 34 형과 아우는 서로 화해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민들레꽃을 벽 너머로 던졌고, 민들레꽃을 보고 화해하고 싶어하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였다.  
① 죽어서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 ②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꺾는 말 ③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귀. ④ 좋은 일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 ⑤ 마음에서 마음으로 뜻을 전함.

#### 핵심 포인트

p.85~93

##### 핵심 포인트

01 맑음, 들판, 우애, 외세

02 바람, 밧줄, 휴전선

03 번개, 천둥, 총

04 비, 민들레꽃

05 햇빛, 민들레꽃

##### 소주제

발단 측량 기사

전개 땅

절정 총

#### 작품 한눈에 보기

p.94

들판	밧줄	총	화해	우애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95

01 ④      02 ③      03 ④      04 ④      05 우리나라의 분단 현실을 극복하자.

01 희곡은 일상어를 바탕으로 한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운율이 있는 언어로 쓰이는 것은 시이다.

02 (다)에서는 형과 아우가 벽 너머에서 서로 총을 쏘며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가)는 발단, (나)는 전개, (다)는 절정, (라)는 하강, (마)는 대단원 단계이다.

03 '측량 기사'는 외세를 상징한다.

04 ㉠은 동작 지시문이다.

05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형과 아우를 우리 민족, 들판을 우리 국토라고 생각했을 때, '분단 현실을 극복하자.'라는 주제를 이끌어 낼 수 있다.

## 04 수필

핵심 체크 | p.96~97

1 형식 2 X 3 O 4 개성적 5 O 6 X

### 개념 확인 문제

p.98

1 (1) 형식 (2) 체험 (3) 개성 2 소설 - ①, ②, ⑤ / 수필 - ③, ④, ⑤ 3 봄  
4 ㉠ - ㉢ - ㉤ - ㉥

### (1) 나의 모국어는 침묵

#### 차근차근 내용 체크

p.99~100

1 ④ 2 ② 3 ② 4 ① 5 ① 6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이다. 7 ④

- 1 글쓴이는 인디언 노인들과 인디언 세계에 대한 흥미 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축제에 참가했다.
- 2 글쓴이는 인디언들과 대화를 하고자 했던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아쉬워하고 있다.
- 3 (라)에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한동안 침묵으로 상대방을 느끼는 것이 인디언 부족들의 전통이라 하였다.
- 4 (바)에서는 땅, 벌레, 들소 등의 자연물을 사랑하는 인디언들의 삶의 태도를 알 수 있다.
- 5 불행한 일들이 있을 때 먼저 침묵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하여 침묵이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을 뿐, 침묵이 불행이 오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고 본 것은 아니다.
- 6 글쓴이가 '그들의 침묵에는 턱없이 모자랐고, 그들의 말에는 더없이 넘쳐 났다.'라고 반성하는 것에서 '너무 많이 말해'라는 이름을 얻은 이유를 추측할 수 있다.
- 7 (차)의 첫 문장에서 인디언 부족마다 언어가 매우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02~103

- 01 ④ 02 ③ 03 ④ 04 기대감 - 당황스러움 - 실망감 - 깨달음 05 상대방의 존재를 더 잘 느낄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06 ④ 07 ⑤ 08 ⑤ 09 ㉡ 사람의 존재를 가장 잘 느끼는 방법은 말이 아닌 침묵임. ㉠ 인디언 흥내를 내며 말을 하지 않다가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음. ㉢ 그동안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면서 살았음.
- 01 이 글은 수필로, 수필은 글쓴이가 경험하거나 사색함으로써 깨달은 내용을 솔직히 고백하듯 쓰는 개성적인 글이다.  
① 소설 ② 설명문 ③ 논설문 ⑤ 시
  - 02 땅을 사랑하고 벌레의 날개 치는 소리나 들소의 입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인디언들이다. 글쓴이가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지는 알 수 없다.

03 ㉠에서는 표면적으로 모순되어 보이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인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에는 역설법이 쓰이지 않았으며, 이별로 인한 슬픔을 반대로 표현한 반어법이 사용되었다.

04 (가)에서 인디언들과의 대화를 기대했던 '나'는 (나)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인디언들로 인해 당황하고 실망하게 된다. 하지만 (다)에서 그 이유를 알고 '침묵'의 의미에 대해 깨닫게 된다. 미안한 감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05 (다)에서 인디언들이 상대방을 잘 느끼기 위해 말을 하기에 앞서 침묵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06 이 글에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비유적 표현이 활용되지 않았다. ②와 ⑤는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07 (다)의 '훗날에야 ~ 알았다.'라는 내용에서 '나'가 축제 이후에야 인디언들이 반응이 없던 이유를 깨달았음을 알 수 있다.

08 ㉠의 '나'는 어설피게 인디언 흥내를 내서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 이러한 행동을 비판할 때는 '힘에 겨운 일을 억지로 하면 도리어 해만 입는다는 말.'인 ⑤를 활용할 수 있다.

09 (가)~(다)에서 첫 번째 경험과 깨달음을, (라)에서 두 번째 경험과 깨달음을, (마)에서 세 번째 경험과 깨달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

####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04~106

1 ② 2 ⑤ 3 ④ 4 ② 5 ⑤ 6 ⑤ 7 ④ 8 ④

- 1 이 글은 수필이다. 수필은 글쓴이의 경험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내용을 다룬다. ②는 논설문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 2 글쓴이는 산악반의 경험에 비추어 되도록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반을 선택하려고 했다.
- 3 도서관 선생님은 자기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서 읽고 수업이 끝나는 종소리가 나면 가도 좋다고 했다.
- 4 글쓴이는 평소 무협지를 많이 읽어 한문 문장을 번역한 듯한 표현에 익숙했다.
- 5 보약이 몸을 건강하게 해 준다면 책은 정신 건강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책을 보약에 비유했다.
- 6 독서를 문자 언어를 통한 작가와의 대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글 속에는 글을 쓴 사람의 생각과 삶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 7 책을 읽음으로써 정신적인 만족감을 얻고 성숙해질 수는 있지만 독서만으로 글을 쓰는 방법을 배울수 있는 것은 아니다.
- 8 ㉠의 의미는 책은 모르는 세계에 대한 지식을 알려 주기도 하고,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일깨워 준다는 것이다.

#### 핵심 포인트

p.104~106

##### 핵심 포인트

- 01 도서반, 마음                      02 무협지, 문장, 뿌듯함  
03 정신문화, 가치, 통로, 길

##### 소주제

- 처음 도서반                      중간 일생  
끝 책

#### 작품 한눈에 보기

p.107

- | 독서 | 고전 | 도서반 | 고전 | 일생 |
|----|----|-----|----|----|
| 정신 | 보약 | 다리  |    |    |
- ①-㉠, ②-㉡, ③-㉢, ④-㉣, ⑤-㉤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08~109

- 01 책                      02 ②                      03 ①                      04 ②                      05 ⑤  
06 ③                      07 도서반, 허생전, 정신세계, 조상, 일생, 통로  
08 그 책을 읽은 경험이 인생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 책을 읽은 경험 때문에 소설가가 되었기 때문이다.)

- 01 박지원의 책을 읽으면서 정신세계가 마치 보약을 먹은 듯이 한층 더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였으므로 '보약'은 '책'을 의미한다.
- 02 이 글은 수필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구성이나 정보 제공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교훈을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①과 ⑤는 설명문, ③은 논설문일 경우의 특징이 될 수 있다.
- 03 책을 많이 읽으면 성공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라)에 성공과 관련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 04 어른들이 말하는 고전은 대부분 내용이 어렵고 딱딱한 경우가 많아 학생들은 읽기를 꺼렸을 것이다.
- 05 '다리'는 두 대상을 연결해 준다. 고전이 다리가 되었다는 것은 고전 작품을 통해 과거 사람들의 생각, 삶의 방식 등과 만날 수 있었다는 의미이다.
- 06 박지원 소설이 한문 문장을 번역한 예스러운 문체로 쓰여 있긴 했지만, 글쓴이는 박지원의 글에 대해 보석처럼 단단하고 품위 있는 문장이 아름답기까지 했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문체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 07 이 글은 글쓴이가 자신의 어린 시절의 일화를 통해 독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전하는 글이다.
- 08 중3 때 글쓴이의 독서 경험은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었으며, 글쓴이가 소설가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 2 | 읽기

### 01 설명 방법 파악하며 읽기

핵심 체크 | p.112

- 1 효과적, 이해    2 정의    3 비교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12

- 1 ⑤    2 ③

- 1 ⑤에서는 국어의 단어를 기능이라는 기준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구分的 방법이 사용된 것이다. ①에는 인과, ②에는 대조, ③에는 분석, ④에는 예시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 2 <보기>에서는 정전기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을 설명하려고 하므로 '인과'의 방법을 사용해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 우리는 왜 간지럼을 느낄까

####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13~115

- 1 ④    2 간지럼을 타는 이유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3 ③  
4 ④    5 ④    6 대조, 인과, 예시    7 ②, ④    8 ②, ⑤    9 ①    10 ③, ⑤
- 1 이 글에서는 간지럼의 특성, 간지럼을 타는 이유 등 간지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2 (가)에서는 간지럼은 자극만으로 사람이 웃게 되는 이유를 아직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간지럼이 수수께끼라고 하고 있다.
- 3 (나)~(라)에서는 대상을 그 구성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의 방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 4 (다)에서 가려움은 아주 약한 움직임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5 과거에는 간지럼이 통각과 관련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1990년의 연구 결과는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도 간지럼을 탄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간지럼의 원인이 통각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 6 (마)~(바)에서는 가려움을 느끼게 된 이유와 간지럼을 느끼게 된 이유를 대조와 인과, 예시의 방법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 7 (바)에서 간지럼을 타게 된 이유가 친밀감이나 유대감을 증진하고 취약한 신체 부위에 대한 방어 능력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8 (사)와 (아)에서는 내가 나를 간질일 때와 남이 나를 간질일 때의 차이, 로봇으로 간질이는 실험을 했을 때 나타난 결과를 인과와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 9 내가 나를 간질일 때는 어디를, 얼마나 세게, 얼마나 오랫동안 간질일지를 다 알기 때문에, 다시 말해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웃음이 나지 않는 것이다.
- 10 최근 간지럼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해진 이유는 간지럼이 운동과 지각의 통합 과정을 밝혀낼 수 있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이다. 또한 간지럼을 연구함으로써 예측 불가능성에 대처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이를 인공 지능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내용 한눈에 보기

p.116

①-㉠, ②-㉠, ③-㉠, ④-㉠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17~118

- 01 ③      02 ③      03 ④      04 ②, ④
- 05 ㉠: 간지럼은 통각과 관련이 있다. ㉡: 간지럼의 원인은 통각만이 아니다.
- 06 ④      07 ⑤      08 ②      09 ㉠, ㉡
- 10 가까운 사이에 간지럼을 통해 유대감을 증진하고, 신체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한 방어 능력을 학습하기 위해서이다.

- 01 이 글은 간지럼을 타는 이유에 대해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글이다. ③ 글쓴이가 직접 경험한 일은 글 속에 언급되지 않았다.
- 02 (나)~(다)에서는 간지러운 느낌을 가려움과 간지럼으로 나누어 그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려움과 대조하여 간지럼의 특성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것이지 가려움의 특성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다.
- 03 피부 질환과 관련 있는 것은 간지럼이 아니라 가려움이다.
- 04 ㉠에서는 가려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된 이유(인과)와 가려움과 관련된 피부 질환의 구체적인 예(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① 정의 ② 예시 ③ 대조 ④ 인과 ⑤ 분석
- 05 ㉠은 고양이로 간질였을 때 고양이의 통각과 관련된 신경이 반응했음을 밝혀낸 실험으로 간지럼이 통각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 준다. ㉡은 척수가 손상되어 통증을 못 느끼는 환자들

들도 간지럼을 탄다는 사실을 밝혀낸 실험으로 간지럼의 원인이 통각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 06 (가)에서는 간지럼을 타게 된 이유, (나)에서는 내가 나를 간질일 때 웃음이 나지 않는 이유와 남이 나를 간질일 때 웃음이 나는 이유, (다)에서는 로봇으로 간질이는 실험을 했을 때 간지럼을 타지 않는 이유, (라)에서는 최근 간지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진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가)~(라)에는 공통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인과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 07 내가 나를 간질일 때는 어디를, 얼마나 세게, 얼마나 오랫동안 간질인지에 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지만 남이 나를 간질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8 ㉠에서는 예시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공을 던지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 주고 있지만 <보기>는 그렇지 않다. ① ㉠과 <보기>에서 인과의 방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③ 내용을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것은 ㉠이다. ④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 준 것은 ㉠이다. ⑤ ㉠에서 사람에게 ‘예측’, ‘행동’, ‘피드백’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지를 사례를 들어 보여 주고 있다.
- 09 간지럼은 예측 불가능할 때 느끼는 감각이다. 남이 나를 간질일 때나 로봇이 예상 범위를 벗어나 간질이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할 수 없게 되므로 간지럼을 타게 된다.
- 10 (가)에서 진화적으로 간지럼을 타게 된 이유가 친밀감이나 유대감을 증진하고 취약한 신체 부위에 대한 방어 능력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정전기가 겨울로 간 까닭은?

####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19~121

- 1 ②, ③    2 ④    3 ③    4 ③, ⑤    5 ①    6 ②    7 ③, ④    8 ④
- 9 예시    10 ㉠
- 1 (가)는 이 글의 처음 부분으로, 앞으로 설명할 대상을 소개하고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며 글을 시작하고 있다.
- 2 (가)에는 예시, (나)에는 정의, 비교와 대조, (다)에는 인과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 3 (나)에서 정전기가 우리 몸에 치명적이지 않은 까닭은 정전기에 전류가 거의 없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다.
- 4 정전기는 건조할 때, 그리고 전자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마찰에 의해 잘 생긴다. 따라서 피부가 건조한 편인 사람은 정전기가 잘 생길 것이다. 또한 나일론 같은 합성 섬유로 된 옷을 입으면 마찰을 통해 몸과 합성 섬유가 전자를 쉽고 주고받을 수 있어 정전기가 잘 생기게 된다.



- 5 습도가 높으면 정전기가 수시로 방전되기 때문에 정전기는 건조할 때 잘 생긴다. 따라서 정전기는 여름보다는 건조한 겨울에 잘 생기는 것이다.
- 6 (마)의 ‘예를 들면, 털가죽 종류는 ~ 전자를 쉽게 얻는다.’와 (바)의 ‘예를 들어 발화점이 낮은 ~ 반도체를 다룬다.’에는 예시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 7 복사기, 집진기, 식품 포장용 랩 등은 정전기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제품들이다.
- 8 정전기를 예방하려면 가습기를 사용하여 실내가 건조해지지 않게 해야 한다.
- 9 (아)에서는 정전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10 이 글은 정전기의 특성과 예방법 등 정전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설명문이다. ⑤ 글쓴이의 체험이나 느낌을 표현하려는 목적으로 쓰는 글은 수필에 해당한다.

### 내용 한눈에 보기

p.122

①-㉔, ②-㉔, ③-㉔, ④-㉔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23~124

- 01 ④      02 ②      03 ②      04 ②      05 높은 곳에 고여 있는 물, 흐르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전기이기 때문이다.
- 06 ④      07 ③      08 ④      09 ②      10 예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독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01 (라)에서는 정전기를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02 이 글을 구성 단계에 따라 ‘처음 - 중간 - 끝’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가)는 처음, (나)~(라)는 중간, (마)는 끝 부분에 해당한다.
- 03 전체를 기준에 따라 몇 개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을 구분이라고 하는데, (나)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나)에서는 정의의 방법을 사용하여 정전기의 개념을 밝히고 있다.
- 04 ①은 ‘물이나 풀, 약, 화장품 따위를 물체의 표면에 묻질러 묻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이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②이다.
- 05 (나)에서는 정전기의 개념을 정의를 사용하여 제시한 뒤 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사용해 나타내었다.
- 06 이 글은 정전기의 특성과 예방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문이다. 글쓴이의 주관적인 경험과 같은 개별적 사례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 07 (나)~(라)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대상을 설명하는 예시의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①에서도 한식의 종류에 해당하는 음식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① 인과 ② 비교 ④ 분석 ⑤ 분류
- 08 공기 중에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기 중의 수분이 전하가 흘러갈 수 있는 도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전기가 수시로 방전되어 정전기가 잘 생기지 않는다.
- 09 ②는 정전기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데 이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10 (나)~(라)에는 주로 예시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정전기가 잘 생기는 조건, 정전기가 해로운 경우와 이로운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독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 02 매체에 나타난 표현 방법과 의도

핵심 체크 | p.125

1 매체    2 ○    3 비판적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25

1 ②      2 의문형 문장을 통해 독자의 관심과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 1 유기 동물의 수가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눈에 보여 주어 유기 동물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있다.
- 2 경제 형편이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이 이타적인 심리를 갖게 되는 현상을 평서형 문장이 아닌 의문형 문장으로 표현함으로써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 착한 소비, 내 지갑 속의 투표용지

###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26~128

- 1 ②    2 ③, ⑤    3 ⑤    4 의미 있는 소비를 하려는 사람들의 열망    5 ⑤
- 6 ①    7 ②, ④    8 ㉔ 비유적 표현 ㉔ 점층적 표현
- 1 달콤 창고를 통해 익명의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마음을 나누고 싶어 했기 때문에 달콤 창고가 몇 달 만에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다.
- 2 자료 2의 지도를 통해 달콤 창고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 자료 3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의 정도를 보여 주는 그래프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체감 경제 고통 지수가 해가 갈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 공정 무역 제품을 소비하거나 기부를 하는 가게에 손님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소비를 할 때 단순히 물건만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소비를 하려는 열망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 5 자료 4, 5는 경제가 나빠질 때 공정 무역 매출액이 늘어남을 보여 주는데, ㉠은 이처럼 경제가 안 좋을 때 타인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가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 6 사람들이 가격이나 품질만으로 물건을 소비하는 데서 나아가 윤리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물건을 소비하려고 하면 기업들도 예전보다 훨씬 가치 지향적인 경영을 하게 된다.
- 7 세계 곳곳에서 착한 소비가 확산되는 까닭은 그동안의 이기적 경쟁심이 발생시킨 문제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이타심이라는 인간 본성이 발현되었기 때문이다.
- 8 ㉠에서는 착한 소비를 투표용지에 빗대어 표현하였고, ㉡에서는 기업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세상으로 점점 더 범위를 넓히는 점층적 방법으로 표현하였다.

### 내용 한눈에 보기

p.129

①-㉠, ②-㉡, ③-㉢, ④-㉣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30~131

- 01 ③      02 ④      03 익명의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04 자료 1: 독자의 시선을 끌고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 글의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자료 2: 달콤 창고가 확산되는 모습을 한눈에 파악하게 할 수 있다. / 달콤 창고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음을 보여 줄 수 있다.
- 05 ②      06 ④
- 07 호모 에코노미쿠스      08 ③      09 착한 소비는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행동이다.

- 01 자료 4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때에도 공정 무역 매출액은 증가하는 현상을 비교해서 보여 주는 그래프이다. ① 자료 3은 우리나라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려 준다. ④ 자료 5는 우리나라의 공정 무역 매출액을 보여 주는 그래프이다. ⑤ 자료 5에서는 2004년에서 2009년까지의 국내 공정 무역 매출액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2010년의 상황은 알 수 없다.
- 02 ㉡은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여 착한 소비의 움직임에 대한 독자의 관심과 궁금증을 유발하는 언어 표현이다. 이 글의 글쓴이는 착한 소비를 긍정적인 현상으로 바라보고, 독자들에게 착한 소비에 동참하자고 설득하고 있다.
- 03 (가)의 ‘이 공간을 통해 익명의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마음을 나누고 있었다.’에서 사람들이 달콤 창고에 동참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 04 자료 1은 달콤 창고의 모습을 직접 보여 주는 사진 자료로, 독자의 시선을 끌고 관심을 유도하여 글의 내용을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자료 2는 축적에 변화를 준 3개의 지도를 연속하여 배열함으로써 달콤 창고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달콤 창고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음을 보여 줄 수 있다.
- 05 자료 6처럼 그래프로 제시하면 전국 기부 가게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보기>처럼 표로 제시하면 전국 기부 가게의 수와 증가량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 06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경쟁은 환경 파괴, 물질 숭배, 지나친 경쟁, 인간성 상실 등의 문제를 불러왔다. ④는 그동안의 이기적 선택에 대한 반성으로 일어난 새로운 움직임이다.
- 07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부각하여 경쟁을 통해 최대의 효율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믿었던 경제학의 관점을 잘 보여 주는 표현이다.
- 08 ㉠은 착한 소비가 단순한 경제 활동을 넘어 기업과 사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실천 행위임을 강조한 표현이다. ㉡은 착한 소비가 미치는 효과와 영향을 강조한 표현이다.
- 09 이 글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착한 소비의 움직임을 소개하고 착한 소비를 통해 세상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3 문법

### 01 정확한 발음과 표기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34~137

- 1 ○    2 전통성    3 ⑤    4 (1) 희망 (2) 의미 (3) 사랑의 미로/사랑에 미로  
5 ㄱ, ㄴ, ㄷ, ㄹ, ㅁ, ㅂ, ㅇ    6 ㄱ, ㅋ-ㄱ / ㅅ, ㅆ, ㅈ, ㅊ, ㅌ-ㄷ / ㄴ-ㄱ /  
ㅍ-ㅂ / ㅅ-ㄴ / ㅈ, ㅊ, ㅊ-ㄹ / ㅅ-ㅂ / ㅈ-ㅇ    7 ○    8 ㄷ    9 ②  
10 X    11 X    12 (1) 께 (2) 뻬다    13 ②

- 3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은 사적인 상황이므로 표준 발음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표준 발음법을 지키지 않으면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표준 발음법에 따라 발음하는 것이 좋다.
- 9 ‘당소’는 표준 발음법 제 12항 2에 따라 [다:쏘]로 발음해야 한다.
- 13 어간이 ‘ㄹ’로 끝날 때의 명사형 활용은 ‘ㅁ’의 형태로 실현된다. 따라서 ‘줄다’의 활용은 ‘쥬’이다.



잠깐!

교과서 학습활동 미리보기

p.138~139

① 표준 발음법과 한글 맞춤법의 개념

규범, 표준어, 실제 발음, 소리, 어법

② 표준 발음법

웃웃울[우소울] → [우도슬], 발대[발따] → [박따]

값을[가블] → [갑슬], 꽃의[꼬세] → [꼬체 / 꼬치]

③ 한글 맞춤법 표기 원칙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는 것 - 창문[창문], 칠판[칠판], 가위[가위]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것 - 연필깎이[연필까끼], 책꽂이[책꼬지]

④ 틀리기 쉬운 한글 맞춤법

(1) 없음, 움

(3) 만들 → 만들, 시퍼요 → 싫어요

학습활동 응용 문제

p.138~139

1 ② 2 ③ 3 ② 4 ②

1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적인 발음을 따른다.

2 받침 ‘래’의 대표 발음은 ‘ㄹ’이다 하지만 ‘랴’는 자음 앞에서 ‘ㄴ’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랴고’는 [랴꼬]로 발음해야 한다.

3 ‘팔’은 [판]으로 ‘참외’는 [차미/차웨]로 발음하므로 표기와 발음이 다르다. 그 외에는 표기와 발음이 같다.

4 ‘웬지’라고 쓰는 것이 옳다. 그 외에는 모두 ‘웬’이라고 쓴다.

차근차근 개념 체크

p.140

01 발음, 규범, 의사소통, 한글 맞춤법 02 (1) X, (2) ○, (3) X, (4) ○, (5) ○, (6) ○, (7) X 03 (1) 우도슬 (2) 박따 (3) 갑슬 (4) 익씨 (5) 부어간 (6) 디그슬 04 (1) 무니 (2) 힌 (3) 의자 (4) 거의, 거이 (5) 허브, 허비 (6) 꼬치, 꼬체 05 (1) ○, (2) ○, (3) X, (4) ○ 06 (1) 담가, (2) 달이듯이, (3) 나오세요, (4) 쓰러질 07 (1) 들어나요 → 드러나요, (2) 문안하게 → 무난하게 08 준수, 준수, 다쳤어요, 단했어요

01 한글 맞춤법과 표준 발음법은 올바른 발음과 표기의 원칙으로, 이를 어기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02 (1) ‘ㄴ’은 첫음절이 아니면 [ㄴ]로, 조사면 [ㄴ]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3) ‘따다’의 바른 발음은 [막따]이다. 받침 ‘래’는 ‘ㄴ’으로 시작되는 어간 앞을 제외하고 자음 앞에서 ‘ㄴ’으로 발음한다. (6) ‘맛있어’의 원칙적인 발음은 ‘있어’가 실질 형태소이므로 [마디씨]이다. 하지만 많이 사용하는 [마시씨]를 허용해 주고 있다. (7) ‘넉적하게’는 [넉짜카게]라고 발음해야 한다.

03 받침 뒤에 실질적 의미가 없는 모음이 오면 받침이 뒤 모음의 첫소리 위치로 옮겨 가 발음된다. 하지만 받침 뒤에 실질적 의미가 있는 모음이 오면 받침이 대표음으로 바뀐 후 뒤 모음의 첫소리 위치로 이동한다. (6)은 예외에 해당한다.

04 ‘ㄴ’의 발음은 자음이 초성으로 올 때는 [ㄴ]로 ‘ㄴ’이 초성일 경우는 [ㄴ]로 발음해야 한다. 두번째 음절에 오는 ‘ㄴ’은 [ㄴ]로도 발음할 수 있고 [ㄴ]로도, 조사의 경우 [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05 (3) 오뚝이가 맞는 표기이다.

06 (1) ‘담그다’의 ‘담그-’에 ‘-아’가 결합하면서 ‘ㄴ’ 모음이 탈락한 것이므로 ‘담가’라고 써야 한다. (2) 문맥상 옷이나 천의 주름 등을 펴기 위해 다리미로 문지른다는 의미의 ‘다리다’가 아니라, 약재 따위에 물을 부어 우려나오도록 끓인다는 의미의 ‘달이다’가 쓰인 경우이므로 ‘달이듯이’라고 써야 한다. (3) ‘낱다’가 아니라 ‘낫다’가 기본형이므로 모음 앞에서 ‘ㅅ’이 탈락한 형태의 ‘나으세요’로 써야 한다. (4) ‘쓰러지다’가 기본형이므로 ‘쓰러질’로 쓰는 것이 옳다.

07 (1) ‘들다’로부터 의미가 떨어진 ‘드러나다’의 경우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2) ‘별로 어려움이 없다’라는 뜻의 단어는 ‘무난하다(無難-)’이다. ‘문안(問安)’은 ‘웃어른께 안부를 여쭙. 또는 그런 인사’를 뜻한다.

08 ‘다쳤어요’는 부딪치거나 맞거나 하여 신체에 상처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빵집이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면 ‘닫혔어요’라고 해야 한다.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41~143

01 ④ 02 ⑤ 03 ⑤ 04 ④ 05 ①  
06 ② 07 ① 08 ⑤ 09 ‘맛있어’는 [마디씨]와 [마시씨] 두 가지로 발음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마디씨]로 발음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시씨]라고 발음하는 현실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10 ⑤ 11 ④ 12 ⑤ 13 ② 14 ③  
15 시퍼요 → 싫어요, ‘시퍼요’는 소리 나는 대로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어법에 맞게 적어야 한다. 16 ④ 17 ④ 18 ⑤  
19 ③ 20 ④ 21 ① 22 ⑤

01 표기 원리 중 어법에 맞게 한다는 것은 단어의 본래의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을 의미한다.

02 ‘의’가 두 개 이상 연이어 오는 것은 ‘ㄴ’의 발음이 [ㄴ]와 달라지는 조건이 아니다. 첫음절인지 아닌지, 자음이 초성인지 아닌지, 조사인지 아닌지에 따라 ‘ㄴ’을 [ㄴ], [ㄴ], [ㄴ]로 발음하게 된다.

03 ‘ㄴ’ 모음은 첫음절이 아닌 경우 [ㄴ]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며 조사인 경우 [ㄴ]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회의’ 세 번째 음절인 ‘의’는 조사이므로 [ㄴ]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할 뿐 [ㄴ]로는 발음할 수 없다.

04 우리말 음절의 끝에서 소리 나는 자음은 모두 7개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이다. ‘ㅅ’은 음절 끝에서는 소리 나지 않는다.

- 05 '뭉[뭉]'의 받침은 'ㄱ', 나머지는 모두 'ㄷ'(뭉[뭉], 솥[솥], 히읇[히읇], 거짓[거짓])으로 발음된다.
- 06 '읽다'는 [익따], '뵙다'는 [뵙따]로 발음하므로, 겹받침의 뒤 자음이 발음된 예에 해당한다. '여덟'은 [여덜], '없다'는 [업따], '외곬'은 [외골/웨골]로 발음하므로 모두 겹받침의 앞 자음이 발음된 예이다.
- 07 '옳다'의 받침 'ㅌ'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ㅂ]으로 발음하므로, '옳다'는 [옵따]로 발음한다.
- 08 '웃웃'은 '웃' 뒤에 실질적 의미를 지닌 형태소인 '웃'이 연결되었으므로, '웃'의 받침 'ㅌ'을 대표음 'ㄷ'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 소리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우순]이 아닌 [우둔]으로 발음해야 한다.
- 09 '맛있어'의 '있어'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표준 발음법에 따르면 '맛'의 받침 'ㅌ'을 대표음 'ㄷ'으로 바꾸어 [마디씨]로 발음해야 한다. 그런데 이와 함께 [마시씨]라는 발음을 허용하는 것은 실제로 발음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 10 표준 발음법에 따르면 '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 'ㅎ'은 'ㄴ'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털어논는]으로 발음된다.
- 11 '답을'을 겹받침 'ㄷ'이 모음으로 시작한 조사 '을'과 결합된 경우로 겹받침의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달글]로 발음한 것이다. ① '있어'의 받침은 겹받침이 아니라 쌍자음이고, ② '수땀'은 뒤에 모음이 연결된 경우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12 '닭은'은 겹받침 'ㅌ' 뒤에 실질적 의미를 지니지 않은 형태소 '-은'이 연결되었으므로 겹받침의 뒤엣것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가 [달믄]으로 발음하게 된다.
- 13 '싫소'는 겹받침 'ㅌ' 뒤에 'ㅌ'이 결합된 경우이므로 'ㅌ'을 [ㅌ]으로 발음해야 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 14 ①은 '담귀야'를 '담가야'로 바꿔야 한다. ②는 '낱기를'을 '낱기'로 바꿔야 한다. '낱다'는 '알을 낱다'와 같은 상황에서 사용한다. ④는 '되요'를 '돼요'로 바꿔야 한다. ⑤의 '다려야'는 다림질할 때의 행위이다. 여기서는 '달려야'라고 써야 옳다.
- 15 어간과 어미의 결합에서는 어간이 본래의 뜻에서 멀어지지 않으면 어간의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이 원칙이다.
- 16 '생선'은 [생선]으로 발음하므로 소리대로 적은 예이고, '국화'는 [구과]로 발음하므로 어법에 맞도록 형태를 밝혀 적은 예이다. ①, ③, ⑤는 둘 다 소리 나는 대로 적은 예이며, ②는 '읽기[일끼]'가 어법에 맞게, '바다[바다]'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예이다.
- 17 ①은 '옳', ②는 '없음', ③은 '만들', ⑤는 '찾음'이라고 해야 한다.

- 18 ㄱ의 '읽다'는 '과-+-있-+-다'이므로 '궤다'라고 표기해야 한다. ㄴ의 '읽다' 역시 '찌-+-있-+-다'이므로 '궤다'라고 해야 한다.
- 19 '둘 이상의 일정한 대상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여 살피다.'를 뜻하는 단어는 '맞추다'이므로 답을 비교해 보는 것은 '맞춰'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맞히다'는 답을 틀리지 않고 맞혔을 때, 다른 대상에게 무언가를 던져 맞혔을 때 사용한다.
- 20 ㉠ '맑고'의 받침 'ㄹ'은 어미 'ㄱ' 앞에 쓰였으므로 [말꼬]라고 발음해야 한다. ㉢ '맑으실'은 'ㅎ'이 모음 앞에서 탈락하므로 [마느실]이라고 발음해야 한다. ㉤ '별'에는 '별'다음에 조사 '에'가 붙은 것이므로 그대로 받침을 '에'의 첫소리로 옮겨 [벼테]라고 발음해야 한다.
- 21 1. '찌개'가 맞는 표기이고, '찌게'는 잘못된 표기이다. 2. '조금 움직일 만큼 손으로 만지거나 무엇으로 대다.'를 의미하는 단어의 기본형은 '견드리다'이므로 '견드리지'가 맞는 표기이다. 3. '쇠고기를 삶아서 알맞게 뜯어 넣고, 얼큰하게 갇은 양념을 하여 끓인 국'은 '육개장'이다. 4. '손가락 따위로 어떤 방향이나 대상을 집어서 보이거나 말하거나 알리다.'를 뜻하는 단어는 '가리키다'이므로 '가리켰다'가 맞는 표기이다.
- 22 '의'의 발음은 원칙적으로 자음을 초성으로 가질 때를 제외하고는 [ㄴ]로 발음하는 것이다. 다만 조사의 경우 [네]로 두 번째 음절부터는 [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 02 담화의 개념과 특성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44~146

1 X 2 맥락 3 도서관이 마음에 드니? / 도서관에 대한 너의 생각은 어떤  
4 의도 5 ○ 6 (1) 세대(나이) (2) 지역 (3) 문화 7 X 8 지시 9 그래서, 그것, 하지만(그러나)

- 3 성현은 도서관이 괜찮아 보이느냐는 뜻에서 질문했고, 이에 유미도 도서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였다.
- 6 (1)에서는 정미와 할머니의 세대 차이 때문에, (2)에서는 외삼촌과 미연이 사용하는 말의 지역 차이 때문에, (3)에서는 '시원하다'라는 말을 쓰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 9 첫 번째 빈칸에는 인과를 나타내는 접속 표현이, 두 번째 빈칸에는 사과를 가리키는 지시 표현이, 세 번째 빈칸에는 역접을 나타내는 접속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잠깐!

교과서 학습활동 미리보기

p.147~148

① 담화의 개념과 구성 요소

- (1) • 담화의 참여자: 유미와 성현이
  - 담화가 이루어진 시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 방과 후
  - 담화가 이루어진 장소: 교실
- (2) 같이 시험공부를 할 장소로 도서관이 어떤지 제안하는 의미이다.
- (3) 담화는 생각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문장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언어 단위이다.

② 담화의 맥락

말하는 이와 듣는 이를 중심으로 담화를 살펴보자.

- (1) (가) “어떠세요?”의 의미 -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드세요?  
청자의 대답 -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머리 모양이에요.  
(나) “어떠세요?”의 의미 - 치료 부위가 아프세요?  
청자의 대답 -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 (2) 화자의 발화 의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 (3)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나 장소를 고려해야 한다.

사회·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담화를 살펴보자.

- (1) • 잘못 이해한 말: 싸게
  - 잘못 이해한 이유: 고모가 사는 지역과 주연이가 사는 지역에서 ‘싸게’라는 말을 다른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 고모는 ‘싸게’라는 말을 ‘빨리, 서둘러서’라는 의미로 사용했지만, 주연이는 ‘값이 저렴하게’라는 의미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 (2) 역사적·사회적 상황, 공동체의 가치, 세대, 문화 등

③ 담화의 구성 요건

- (1) 유나의 말이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신비의 말은 발화마다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그것들이 하나의 주제로 모이지 않아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알기 어렵다. 이에 비해 유나의 말은 “충분한 수면이 건강에 도움을 준다.”라는 하나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다.
- (2) (나)가 (가)보다 문장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나)는 ‘이것’, ‘이’와 같은 지시 표현과 ‘하지만’, ‘또한’과 같은 접속 표현을 사용하여 문장과 문장을 (가)보다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습활동 응용 문제

p.147~148

1 ⑤ 2 ⑤ 3 ③ 4 하지만(그러나)

- 1 상황 맥락은 화자와 청자, 시간과 장소, 의도와 목적 등이 있다. 지역, 세대, 성별, 문화, 계층 등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해당한다.
- 2 “어떠세요?”라는 말만으로 기자가 운동선수에게 운동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 달라는 말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 3 외국인인 한국인이 하는 예의상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문화의 차이 때문이다.
- 4 빈칸 전후 문장의 의미가 반대이므로 역접의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표현이 들어가야 글의 응집성을 높일 수 있다.

차근차근 개념 체크

p.149

- 01 (1) 담화 (2) 화자 (3) 청자 (4) 발화 (5) 맥락      02 화자의 청자: 누나, 동생 / 맥락: 놀이공원에서 누나와 동생이 놀이 기구를 타려고 함. / 발화: • 동생: 놀이 기구 타기를 무서워함. • 누나: 동생을 안심시키고 있음.
- 03 목적, 상황      04 세대, 사회      05 (1)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드세요?, (2) 치료 부위가 아프세요?      06 세대(나이)      07 통일성, 접속
- 08 (1) 이것, 이 (2) 하지만, 또한      09 하지만(그러나)

- 02 <보기>에서는 동생과 누나가 놀이공원에서 놀이 기구를 타는 것에 대해 서로 화자가 되기도 하고, 청자가 되기도 하며 대화하고 있다.
- 03 담화를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상황 맥락의 요소에는 화자와 청자, 시간과 장소, 의도나 목적 등이 있다.
- 04 담화를 해석할 때에 고려해야 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의 요소로는 지역, 세대(나이), 문화 등이 있다.
- 05 화자와 청자의 관계, 장소, 의도나 목적 등을 바탕으로 담화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 06 승재는 유행하는 줄인 말을 사용하여 할아버지와 대화하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그러한 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를 몰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와 같이 세대에 따라 다른 어휘의 차이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져다줄 수도 있다.
- 08 ‘이것’은 ‘운동은 몸에 좋다.’를, ‘이’는 ‘너무 무리하는 것도 좋지 않다.’를 가리키는 지시 표현이다. ‘하지만’은 앞뒤 문장을 역접으로 이어 주고, ‘또한’은 뒤 문장을 첨가하는 접속 표현이다.
- 09 ㉠의 앞뒤 문장은 의미상 반대되므로 역접의 관계를 나타내는 ‘하지만’, ‘그러나’ 등으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50~151

- 01 ④      02 ③      03 ③      04 ③      05 ㉠ 글의 주제와 거리가 멀어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해야 한다. ㉡ 접속 표현 ‘그러나’를 넣으면 글의 응집성을 높일 수 있다.      06 ①      07 ④
- 08 ②      09 ③      10 ③

- 01 담화가 이루어지는 장면 자체와 관련된 맥락은 상황 맥락이다.
- 02 식당 주인은 영업을 마치는 시간을 지켜 달라는 뜻으로 말하였으므로, 손님은 빨리 식사를 마치려고 할 것이다.
- 03 ③은 ‘우리’라는 말을 자주 쓰는 한국 문화의 특징을 미국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관련된 사회·문화적 맥락은 성별이 아니라 문화이다.
- 04 담화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려면 ㉠에는 ‘달콤하고 담백한 양념맛, 전혀 맵지 않아서’ 등으로 설명된 떡볶이의 맛이 반영된 반응이 들어가야 한다.



- 05** 문장들의 내용이 담화의 주제를 향해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을 통일성이라고 하고, 담화를 구성하는 문장들이 형식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을 응집성이라고 한다.
- 06** ㉠은 지각하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남아 있다는 뜻이고, ㉡은 탁구 치러 갈 만큼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다.
- 07** 같은 문장이라도 말하는 이와 듣는 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즉 (가)에서는 식당 주인이 손님에게 음식의 맛이나 접대 태도에 대해 묻는 것이고, (나)에서는 치과 의사가 환자에게 치아 상태가 괜찮았는지 묻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적절한 대답을 해야 한다.
- 08** 늦게 등교한 학생에게 “지금 몇 시니?”라고 묻는 것은 지각한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야 적절하다.
- 09** 줄리엣은 손님의 “괜찮아요.”라는 대답을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적 차이 때문이지 세대 차이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10** ㉠에는 전환의 기능을 하는 말, ㉡에는 순접의 기능을 하는 말, ㉢에는 역접의 기능을 하는 말, ㉣에는 ‘방귀를 뀜 것은 제가 아니라고’를 지시하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 03 한글의 창제 원리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52~154

1 X 2 자주 3 28 4 ○ 5 ④ 6 X 7 X 8 가획 9 X  
10 ④ 11 ○ 12 ㄱ, ㄴ, ㄷ 13 ㅏ, ㅑ, ㅓ 14 음절 15 ㄴ, ㄷ

- 5** 한글은 중국보다 우수한 문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편안하게 문자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 10** ‘ㅅ’은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자음자이고 나머지는 모두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진 자음자이다.
- 13** 초출자는 기본자인 ‘ㄱ, ㄴ, ㄷ’의 위, 아래, 왼쪽, 오른쪽에 ‘ㅇ’를 붙여서 만든다.
- 15** ㄱ. 한글은 풀어쓰기를 할 때보다 모아쓰기를 할 때 읽기가 더 수월하다. ㄴ. 가획의 원리로 같은 위치에 나는 소리가 같은 모양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 점은 외국인이 한글을 쉽게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



#### 교과서 학습활동 미리보기

p.155~156

- ① 한글의 창제 배경과 창제 원리 이해하기**  
(1)-(b), (2)-(C), (3)-(a), 달라, 백성, 뜻, 편리하게
- ② 자음의 제자 원리 탐구하기**  
① 입, 이, 목구멍 / ㄱ, ㄴ, ㄷ, ㄹ  
② 더해서 / (1) ㄷ (2) ㅌ (3) ㅊ (4) ㅎ  
③ 같은 글자 또는 서로 다른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붙여 썼다.

#### ③ 모음의 제자 원리 탐구하기

① 하늘, 땅, 사람 / ㅡ, ㅣ

②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ㅖ, ㅙ, ㅚ

#### ④ 한글의 우수성 탐구하기

- ① 적은 수의 글자로 수많은 단어를 표현할 수 있다.
- ② 한글은 소리가 비슷한 글자들끼리 모양이 비슷해서 글자의 모양을 보고 글자들의 관계나 소리의 특징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영어 알파벳은 소리가 비슷한 글자라도 모양이 전혀 달라서 글자의 모양을 보고 글자들의 관계나 소리의 특징을 짐작하기 어렵다.
- ③ • 한글의 체계적인 창제 원리를 적용하여 컴퓨터나 휴대 전화 자판을 이용할 때 정보를 효율적으로 입력할 수 있다.  
•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을 합쳐서 모아쓰기 때문에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정보를 전달하는 데 실용적이다

#### 학습활동 응용 문제

p.155~156

1 ⑤ 2 ⑤ 3 ④ 4 ④

- 1** 세종 대왕은 중국의 글자를 빌리지 않아도 백성들이 문자를 쉽게 익혀 읽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글을 만들었다.
- 2**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만든 ‘ㅇ’에 획을 한번 더하여 만든 글자는 ‘ㅎ’이다.
- 3** 제시된 모음들은 기본자 ‘ㅡ’와 ‘ㅣ’에 ‘ㅇ’를 한 번 합하여 만든 글자들이다.
- 4**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릿값을 가지고 있어 쉽게 읽을 수 있다.

#### 차근차근 개념 체크

p.157

- 01** (1) 자주 정신, (2) 애민 정신, (3) 실용 정신 **02** (1) ㅋ (2) ㄴ, ㄷ (3) ㅍ (4) ㅅ  
(5) ㅇ, ㅎ **03** (1) ㄱ (2) ㄴ (3) ㄷ **04**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05** (1) ○ (2) X (3) X (4) ○ **06** ㉠, ㉡ **07** (1) 합성 (2) 가획
- 01** 세종 대왕은 한자를 모르는 백성이 자신의 뜻을 문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여(애민 정신) 한자가 아닌 우리의 독창적인 문자의 필요성을(자주 정신) 깨닫고 모든 사람이 쉽게 익혀 날마다 편리하게 쓸 수 있는(실용 정신)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 02** 자음의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기본자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을 만들고 각 기본자에 획을 더해 ‘ㅋ, ㆁ, ㆆ, ㅌ, ㅍ, ㅈ, ㅊ, ㅎ’을 만들었다.
- 03**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기본자를 만들었다.
- 04** 모음의 기본 글자에 각각 ‘ㅇ’를 한 번 결합하여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를 만들고, 여기에 ‘ㅇ’를 한 번 더 합하여 ‘ㅘ, ㅙ, ㅚ, ㅜ, ㅠ, ㅡ, ㅣ’를 만들었다.



- 05** (1)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로 발음되지만 영어는 같은 글자도 단어에 따라 발음이 달라진다. (2) 가획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한글은 소리 나는 위치가 같은 글자들의 모양이 서로 비슷하지만 영어 알파벳은 그렇지 않다. (3) 표의 문자인 한자는 대상을 나타내기 위해 수많은 문자가 있어야 하지만 표음 문자인 한글은 적은 수의 글자로 수많은 단어를 표현할 수 있다. (4) 한자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의 문자이고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표음 문자이다.
- 06** 한글은 글자 수가 적어서 컴퓨터 자판에 거의 모든 글자를 배열해서 입력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한자는 글자 수가 많아서 컴퓨터 자판에 모든 글자를 배열하지 못하고 영어 알파벳으로 발음을 입력한 뒤 한자를 선택해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글은 정보를 입력하고 전달하는데 효율적인 문자이다.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58~159

- 01** ③      **02** ⑤      **03** ②      **04** ③      **05** ⑤  
**06** ①      **07** ④      **08** '·'는 하늘의 둥근 모양을, 'ㅡ'는 땅의 평평한 모양을, 'ㅣ'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09** ②  
**10** ②      **11** ④      **12** ⑤      **13** ⑤      **14** 한글은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 때문에 영어 알파벳에 비해 좁은 공간에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 01**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는 한문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왕족이나 양반 계층과 달리 한문 교육을 받을 정신적·물질적 여유가 없었던 평민들은 한문으로 쓰인 글을 읽을 수 없고, 한문을 쓸 수도 없어 문자 생활을 하기 어려웠다.
- 02** <보기>에서는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자주 정신), 제 뜻을 펴지 못하는 백성들을 가엾게 여겨(애민 정신)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들었는데(창조 정신), 이는 모든 사람이 쓰기 편리하게 하고자 함(실용 정신)이라는 의도가 나타나 있다. '준법 정신'은 법률이나 규칙을 잘 지키는 정신을 의미한다.
- 03** 자음의 기본자 'ㄱ, ㄴ, ㄷ, ㅌ, ㄴ'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 04** 'ㄹ'은 자음의 기본자로 입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이다. 'ㄱ'은 'ㄱ'에, 'ㄷ'은 'ㄷ'에, 'ㄴ'은 'ㄴ'에, 'ㄹ'은 'ㄹ'에 획을 더해서 만든 글자이다.
- 05** <보기>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ㄱ'이 발음되는 모양을 보여 주고 있다.
- 06** <보기>는 모음의 기본자를 결합하여 만든 'ㅏ, ㅑ, ㅓ, ㅕ'에 기본자 'ㅇ'을 한 번 더 결합하여 만든 'ㅗ, ㅛ, ㅜ, ㅠ'에 대한 설명이다. ②의 '전혀', ③의 '요리', ④의 '우유', ⑤의 '더블샷'에서 이 모음을 찾을 수 있다.

- 07** <보기>를 통해 모음은 자음의 오른쪽이나 아래쪽에 위치할 수 있고, 자음과 모음을 붙여 모아쓰므로써 하나의 글자를 만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08** <보기>는 천지인을 본떠 만든 모음의 기본자로 각각 하늘의 둥근 모양, 땅의 평평한 모양,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뜬 것이다.
- 09** 표의 문자인 한자는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이고, 표음 문자인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이다. 한글은 적은 수의 글자로 수많은 음절을 표현할 수 있어 한자에 비해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 10** (가)와 (나) 모두 사용된 자음과 모음 수는 같지만, (가)는 자모음을 풀어쓴 것인 데 비해 (나)는 모아쓴 것이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고 의미도 쉽게 파악된다.
- 11** 컴퓨터로 정보를 입력할 때, 적은 수의 글자를 이용하는 한글이 일본어나 한자보다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12** 'ㄱ'과 'ㅋ', 'ㄴ'과 'ㄷ', 'ㄷ'과 'ㅌ', 'ㅌ'과 'ㄴ', 'ㄹ'과 'ㄹ', 'ㅇ'과 'ㅇ'은 기본자와 가획자의 관계이지만 'ㅈ'과 'ㅊ', 'ㅊ'과 'ㅈ'은 그렇지 않다.
- 13** 한글은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는 글자들의 모양이 서로 닮아 있어, 글자의 모양에서 글자들의 관계나 소리의 특징을 짐작할 수 있지만, 반면에 영어는 하나의 글자가 다양한 소릿값을 지니고 있으며 글자의 모양과 소리는 관련이 없다.
- 14** 한글은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 때문에 가로쓰기와 세로쓰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버스 노선 안내판의 좁은 공간에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영어는 가로쓰기만 할 수 있어서 버스 노선 안내판에서도 긴 정류장 이름을 대각선 방향으로 기울여서 보여 주어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다.

## 4 | 듣기·말하기

### 01 공감하며 대화하기

핵심 체크 | p.162 |

- 1 의미    2 공감    3 소극적 들어 주기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62

- 1 ③    2 ④

- 1** 청자는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이지, 자신의 의도에 맞추어 상대의 이야기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

- 2 ①, ② 상대방이 말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③ 표정으로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 주기 ⑤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기

####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63~165

- 1 ⑤ 2 ③ 3 대화의 필요성과 중요성 4 ③ 5 ③ 6 상대가 계속 말할 수 있도록 돕는다. 7 ④ 8 ③ 9 상대방이 한 말을 요약하기

- 1 (가)에서는 두 학생이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어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정보와 감정을 주고받지 못하고 각자 일방적으로 말하고 있다.
- 2 (다)에서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서 쌓인 오해가 대화를 하며 풀어지는 상황을 통해 대화의 필요성을 보여 주고 있다.
- 3 (다)에서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눔으로써 그동안 몰랐던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다. 즉 듣기와 말하기를 통해 대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이라는 의미를 공유하게 된 것이다.
- 4 ① 상대의 지식수준을 고려한다. ② 상대의 반응에 따라 조정한다. ④ 말하기 목적을 분명히 한다. ⑤ 상대의 말이 끝난 후 묻는다.
- 5 공감하며 듣기란 상대의 말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 6 광수는 상대방이 말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적절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7 상대의 말에 관심을 보이거나 계속 말을 이어나가도록 하는 것은 소극적 들어 주기이나, ④는 적극적 들어 주기에 해당한다.
- 8 찬우는 문제 해결 방법을 직접 알려 준 것이 아니라 은미의 말을 요약하고 의미를 재구성해 말함으로써 은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왔다.
- 9 찬우는 상대방이 한 말을 요약해서 다시 상대에게 전달함으로써 상대가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 내용 한눈에 보기

p.166

의미	의미	생각	중요성	친밀한
공유	목적	청자	집중	반응
공감	소극적	집중	적극적	요약
재구성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67~168

- 01 ④ 02 의미 공유 03 ② 04 ① 05 청자의 지식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06 ① 07 ③ 08 ⑤  
09 (가)의 광수와 (나)의 찬우 모두 공감하며 듣기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광수는 소극적 들어 주기, 찬우는 적극적 들어 주기를 하고 있다.

- 01 (가)의 학생들은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서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① 감정적 반응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말의 의도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③ 비판적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⑤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의미를 만들어 가는 태도가 필요하다.
- 02 (가)에서는 대화 참여자들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았고, (다)에서는 상대의 말에 집중하지 않았으며, (라)에서는 상대의 지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말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의미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03 대화에서 화자와 청자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말하는 도중 계속 바뀐다.
- 04 예나가 광희의 말을 집중해서 듣지 않고 건성으로 답했기 때문에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 05 (라)에서 이모는 조카의 지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 말함으로써 조카가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06 광수는 은미의 말에 집중하고 있음을 표정이나 몸짓으로 드러내거나, 은미가 말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말만 할 뿐 조언을 들려주지는 않았다.
- 07 찬우는 은미의 말을 요약하거나 재구성하며 반응함으로써 은미가 스스로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등을 깨닫게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은미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 08 ㉠ 뒤에 이어진 “응”이라는 반응으로 보아 ㉠에서는 준호의 말을 요약하며 공감을 드러냈을 것이다. 또한 ㉡ 뒤에서는 “맞아”라고 하고 있으므로 ㉡에서는 준호의 말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공감을 드러냈을 것이다. ㉠, ㉡ 모두 준호에게 질문하거나 반박하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9 (가)의 광수와 (나)의 찬우는 둘 다 상대의 말에 공감하며 듣고 있다. (가)에서 광수가 보인 행동이나 말(몸짓이나 표정으로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 주기, 상대방이 말을 이어 갈 수 있게 격려하기)은 모두 소극적 들어 주기에 해당한다. (나)에서 찬우가 은미의 말을 요약하거나, 의미를 재구성해 말해 주는 것은 모두 적극적 들어 주기에 해당한다.



## 02 발표하기

■ 핵심 체크 | p.169

1 ○ 2 핵심 정보 3 청중, 이해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69

1 ② 2 ⑤

- 1 핵심 정보를 잘 뒷받침할 수 있는 매체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단순히 다양한 매체를 골고루 활용하는 것은 발표의 효과를 높이는 것과 관련이 없다.
- 2 발표에서 매체 자료는 내용과 상황, 구성 등에 따라 적절히 제시해야 하는 것이며 단지 최신의 것이라 하여 먼저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70~173

1 ⑤ 2 ② 3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듣는 이의 흥미를 끌 수 있다. 4 ④ 5 ① 6 문제 상황-해결 방안-실천 방안의 순서로 내용이 제시되도록 '3 → 1 → 2'의 순서로 재배열 한다. 7 ④ 8 ③ 9 ① 10 ② 11 ② 12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 / 우리 학교의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에 동참하자.

- 1 매체 자료의 활용 효과를 이야기하며 매체 자료를 활용하기로 결정했을 뿐, 활용 방법을 논의한 것은 아니다.
- 2 발표 준비 과정에서 발표할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지, 아직 어떤 순서로 조직할 것인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 3 해원의 마지막 말에 매체 자료의 활용 효과가 드러난다.
- 4 ① 설문지 ②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가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 보려 함. ③ 블로그 자료 ⑤ 기사 자료
- 5 주변이 지저분할 때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난 실험 결과를 통해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것이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 6 실태의 문제점을 보여 준 후 해결 방법을 알려 주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내용 전달에 보다 효과적이다.
- 7 발표 동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① 안녕하세요. ② '저는 ~ 이 해원입니다.' ③ '깨끗한 학교를 ~ 합니다.' ⑤ '먼저 우리 학교 ~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8 (다)에서는 네덜란드의 어느 대학에서 진행된 실험 결과를 근거로 삼아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대학이 우리 학교와 비슷한 상황을 보여 주는 사례인 것은 아니다.

- 9 주변 환경이 지저분할 때 더 많은 사람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는 실험 결과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 10 학교 꽃밭 만들기의 목적은 버려진 장소 활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있다.
- 11 (마)는 발표를 마무리하는 단계이다. 발표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 과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① '지금까지 ~ 발표했습니다.' ③ '우리 모두를 위해 ~ 생각합니다.' ④ '이상으로 ~ 고맙습니다.' ⑤ '발표를 준비하면서 ~ 깨달았습니다.'
- 12 (마)에서 발표자는 발표를 정리하며 모두를 위해 학교 환경에 관심을 갖고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 내용 한눈에 보기

p.174

자료	구성	주제	매체 자료	정리
주제	방법	꽃밭	설문	동영상
실태	핵심 정보	실천	핵심 정보	매체 자료
흥미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75~176

- 01 ⑤ 02 ⑤ 03 ④ 04 학교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한다. 05 ⑤ 06 ⑤ 07 ③
- 08 학교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실천한 활동으로 학교 꽃밭 만들기를 제시한다.
- 01 발표에서 불필요하게 많은 매체 자료를 활용하면 오히려 발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 02 이 발표는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는 실태와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다루고 있으므로 쓰레기를 길에 버리는 사람들의 연령을 분석하는 것은 발표 내용과 관련이 없다. ②, ③ (다)를 뒷받침함. ④ 우리 학교의 환경 실태를 보여 줄 수 있음.
- 03 우리 학교 환경의 실태에 관한 학생들의 인식과 학교에서 가장 지저분한 장소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을 표와 그래프로 제시해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사진 자료로 지저분한 장소로 꼽힌 곳의 모습을 제시해 실태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나)에 제시된 매체 자료를 통해 학교 환경이 지저분해진 원인은 알 수 없다.
- 04 주변 환경이 지저분할 때 더 많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는 실험 결과에서 학교의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낙서를 지우거나 쓰레기를 바로 치우는 등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05 발표의 핵심 내용을 메모하며 들어야 한다.
- 06 모두가 촬영한 영상은 학교에 꽃밭을 만들어 가꾸는 방법 한 가지만 제시한 것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한 것은 아니다.
- 07 발표를 준비할 때에는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되, 이중 발표 내용과 흐름을 고려해 필요한 자료만 선정해서 활용해야 한다.
- 08 (가)는 학교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실천한 활동으로 '게릴라 가드닝'에서 착안한 학교 꽃밭 만들기를 소개하고 있다.

## 5 | 쓰기

### 01 설명하는 글 쓰기

핵심 체크 | p.180

1 X 2 분류 3 X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80

1 ④ 2 ②

- 1 원인과 결과에 따라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 2 고쳐쓰기는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 없는지 살피며 진행되는 것으로, 주제를 바꾸는 것은 아예 새로운 글 쓰기를 시작하는 것이지 고쳐쓰기로 볼 수 없다.

####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81~184

- 1 ⑤ 2 머리카락이나 머릿결에 관련된 정보를 설명하기 위해서 3 ②  
4 ① 5 ② 6 ① 7 ⑤ 8 ㉠ 비교 ⑥ 분류 ⑦ 인과 9 ④ 10 ③  
11 ② 12 ⑤ 13 ④ 14 재구성

- 1 글에 사용할 설명 방법은 자료를 수집하고 내용을 선정한 후 생각해 볼 부분이다.
- 2 정안이의 생각 중 '머리카락이나 머릿결과 ~ 설명하는 글을 써 볼까?'에 글을 쓰는 목적이 드러나 있다.
- 3 필요한 정보를 찾아 설명하는 글에 답을 내용을 생성하는 과정이다.
- 4 '머리카락'을 대상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인 '모표피, 모피질, 모수질'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분석'하는 방법을 이용해 쓰는 것이 적절하다.
- 5 모표피를 정의하여 설명하고 머리카락 손상의 의미를 밝힌 자료로, 모표피와 머리카락의 공통점을 설명하는 자료가 아니다.

- 6 (다)는 건강한 머릿결을 만드는 데 음식들을 예를 들어 열거하면서 그 이유를 인과의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고, (라)는 머릿결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 열거하며 파마나 염색을 자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인과의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 7 머리카락이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졌으므로 열에 자주 노출하면 케라틴이 변형하여 머릿결이 나빠지는 것이지 케라틴이 머릿결을 나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다.
- 8 대상의 공통점을 설명하는 것은 비교, 대상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는 것은 분류,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것은 인과이다.
- 9 정안이는 머릿결이 나빠지는 이유와 이를 예방하고 건강한 머릿결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문을 쓰고자 한다. ④는 머릿결이 안 좋은 것을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활용한 예이므로 글의 주제와 거리가 멀다.
- 10 ㉠은 예시, 열거, 인과 등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구분'은 전체를 기준에 따라 몇 개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으로 '건강한 머릿결을 유지하는 방법'을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 11 이 글은 건강한 머릿결을 갖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글이다. ①, ③, ④ 글의 세부 내용에 해당한다. ⑤ 이 글은 깨끗한 머리카락이 아닌 건강한 머리카락에 관한 글이다.
- 12 ㉠은 머리카락의 구조를 설명한 것으로 <보기>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 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13 문단별로 다른 설명 방법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되더라도 대상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설명 방법을 써야 한다.
- 14 글이 논리적으로 전개되도록 내용의 순서나 구성을 조정하는 것을 '재구성'이라 한다.

#### 내용 한눈에 보기

p.185

목적	개요	방법	정의	인과
추가	재구성	유지해	그래서	문맥
이해	중심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86

- 01 ③ 02 ⑤ 03 ⑤ 04 ① 05 (마)의 '머리카락은 추위나 더위, 물리적 충격 등과 같은 다양한 외부 자극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해 준다.'는 문단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 01 (라)는 이 글을 요약, 정리하는 끝부분이므로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는 문장을 앞에 추가하는 것이 좋다.
- 02 (가) 설명 대상 소개 → (마) 머리카락의 구조와 머리카락 손상의 의미 → (다) 머릿결이 나빠지는 이유 → (나) 건강한 머릿결을 유지하는 방법 → (라) 설명 내용 마무리

- 03** 머리카락을 튼튼하게 하거나 머리카락이 자라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을 뿐 인용은 사용하지 않았다.
- 04** ㉠은 ‘윤기가 ~ 바라는 것이다’와 뒤에 나오는 ‘거울을 ~ 현실’은 서로 상반된 내용이므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상반되는 사실을 나타내는 두 문장을 이어 줄 때 쓰는 ‘하지만’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은 문맥에 어울리지 않고, ㉣, ㉤은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으므로 바꾸어 써야 한다.
- 05** 글의 주제나 문단의 중심 내용과 관련 없는 내용은 삭제해야 한다.

## 02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글 쓰기

1 속담 2 X 3 X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87

1 ㉢ 2 ㉡

- 1** ③의 ‘손을 씻다’는 일반적인 의미로 쓰인 말이다. ① 발이 묶이다: 몸을 움직일 수 없거나 활동할 수 없는 형편이 되다. ② 김치국 마시다: 상대는 생각지도 않는데 미리부터 다 된 일로 여기고 행동한다. ④ 배가 아프다: 남이 잘 되어 심술이 나다. ⑤ 귀에 못이 박히다: 같은 말을 여러 번 듣다.
- 2** ① 우연히 갔다가 공교로운 일을 만났을 때 이르는 말 ② 이 루기 매우 어렵다. ③ 매우 쉬워서 잘할 수 있다는 말 ④ 먼 데서 생긴 일은 알아도 가까운 데서 생긴 일은 모르고 있다는 뜻 ⑤ 잘 되어가던 일을 갑자기 망쳐 실패했을 때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88~190

1 ㉡ 2 ㉣ 3 김빠진 탄산음료 4 ㉢ 5 ㉣ 6 ㉠ 7 ㉡ 8 ㉢  
9 등잔 밑이 어둡다

- 1** 우스꽝스러운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 2** 자신의 말이 헛된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슬기를 칭찬하는 말임을 강조하기 위해 인용한 표현이다.
- 3** 축구 경기를 할 때 슬기가 없어 재미가 없었다는 것을 김이 빠져버린 탄산음료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4** ‘몹시 애타게 오랫동안 기다리다.’라는 의미의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① 잊히지 않고 자꾸 눈에 떠오른다. ② 오가지 않거나 관계를 끊다. ④ 잊지 않게 단단히 마음에 기억하다. ⑤ 정신이 갑자기 들다.
- 5** ㉠은 ‘발 벗고 나서다’, ‘소매를 건다’, ㉢은 ‘새 발의 피’와 의미가 통한다. ① 사귀어 아는 사람이 많아 활동하는 범위가 넓다. ② 여러 사람이 몹시 술렁거리다. ③ 음식을 매우 빨리

먹어 버리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⑤ 어려운 지경에서 벗어나 크게 활약할 판을 만난 처지를 이르는 말

- 6** ①은 일반적인 표현이다. ② 옷과 친구를 대조해 우정을 강조했다. ③ 운동주의 <서시>를 활용했다. ④ 언어유희를 활용했다. ⑤ 드라마 대사를 활용했다.
- 7** ②는 ‘몹시 놀라 충격을 받다.’의 의미를 담은 관용구로 당황스러운 상황과 이에 따른 감정을 표현하기에 적절하다.  
① 부끄러운 심정을 표현하는 말 ③ 몹시 욕심을 내거나 관심을 기울이다. ④ 아슬아슬하여 마음이 조마조마하도록 몹시 애달다. ⑤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르다.
- 8**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혈육의 정이 깊음을 이르는 말이므로 친구 사이에서 쓰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
- 9** 자신의 교복 안주머니에 들어 있던 교통 카드를 잃어버린 줄 알고 찾고 있던 상황이다. 따라서 ‘가까이에 있는 것을 도리어 알아보지 못한다.’는 뜻을 지닌 속담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내용 한눈에 보기

p.191

관용구 외롭다	고마움 발 벗고	안부	관용구	흥 부자
------------	-------------	----	-----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92

01 ① 02 ③ 03 (가) 외로움 (나), (다) 그리움 (라) 고마움  
04 ② 05 ‘비행기 태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여 자신이 한 말이 헛된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친구를 칭찬하는 말임을 강조하고 있다.

- 01** (가)에서 ‘참새가 방앗간을 그저 지나랴(자기가 좋아하는 곳은 그대로 지나치지 못한다는 의미)’라는 속담을 활용해 떡볶이 집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자주 들렀음을 드러냈다.
- 02** (다)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흥이 많은 친구’라는 표현을 ‘흥 부자’라고 인상적으로 표현했다.
- 03** (가)에서는 친구가 전학 간 뒤 느끼는 외로움이, (나)와 (다)에서는 친구에 대한 그리움이, (라)에서는 친구에 대한 고마움이, (마)에는 친구를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 드러나 있다.
- 04** ㉠은 ‘눈이 빠지다, 목이 빠지다’, ㉡은 ‘발 벗고 나서다, 팔을 걷어붙이다’와 의미가 통한다. ① 눈에 밝히다: 잊히지 않고 자꾸 눈에 떠오른다. 몹이 달다: 마음이 조급하여 안타까워하다. ③ 걸음을 재촉하다: 길을 갈 때에 빨리 서둘러 가다. ④ 머리를 맞대다: 어떤 일을 의논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서로 마주 대하다. 손발을 맞추다: 함께 일을 하는 데에 마음이나 의견, 행동 방식 등을 서로 맞게 하다. ⑤ 눈을 씻고 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하여 보다.
- 05** ‘비행기를 태우다’는 ‘남을 지나치게 칭찬하거나 높이 추어올려 주다.’는 의미로 쓰이는 관용구이다.